

碩士學位 論文

社會階層에 따른 學父母의 教育熱 研究

- 濟州道 學父母를 中心으로 -

指導教授 李 淳 珩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教育行政專攻

黃 行 文

2000年 7月

社會階層에 따른 學父母의 教育熱 研究

- 濟州道 學父母를 中心으로 -

指導教授 李 淳 珩

이 論文을 教育學碩士學位論文으로 提出함.

2000年 7月 日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教育行政專攻



黃行文的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2000年 7月 日

審查委員長 印

審查委員 印

審查委員 印

<國文抄錄>

社會階層에 따른 學父母의 教育熱 研究 *

-濟州道 學父母를 中心으로-

黃 行 文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教育行政專攻

指導教授 李 淳 弼

세계적으로 높은 한국인의 교육열은 우리나라 교육을 특징짓는 핵심요인 중의 하나다. 우리나라의 부모는 대부분이 계층적 배경을 넘어서 자녀를 대학까지 그것도 몇몇의 한정된 계열에 진학시키려하고 있어 모든 계층에서 과열된 입시경쟁을 야기 시키고 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계층적 배경에 관계없이 제주도 학부모의 교육열이 모든 계층에서 고루 높인가 하는 것을 확인해 보고자 질문지법에 의해 '학부모의 자녀 대학 진학열과 자녀교육 지원행위'의 실상을 밝히고자 하였다.

제주도내 초등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사용된 척도는 학부모의 교육열과 사회계층에서 자기 9개와 6개의 하위변인을 설정 총 15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이상과 같은 과정을 거쳐 일어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제주도 학부모들의 97.8%가 대학을 보내겠다고 계획하고 있어 전국의 97.5%보다 약간 상회하고 있다. 상류층 100%, 중류층 98.5%, 하류층 94.3%가 대학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다. 전체적으로는 사범계열을 선호하고 있으나, 상류층은 인문과학계열, 공학계열, 중류층은 사범계열, 사회과학계열, 하류층은 상경계열, 체육계열의 순으로 대학의 전공 계열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류층은 서울, 중류층은 서울 및 거주지, 하류층은 거주지에 있는 대학에 진학하기를 우선 희망하고 있다. 한편 4년제 대학 이상을 희망하는 사람들의 대다수 졸업이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직업을 갖는데 유리하다는 인식 이외에도 많은 유인가를 가지고 있다고 의식하고 있다. 100%의 학부모가 교육비를 부담하면서도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고, 96.2%의 학부모는 자녀가 대학 간성적만 되면 가정형편이 어려워도 꼭 대학에 보내겠다고 하고 있다. 그리고 53%이상의 학부모가 자녀교육을 위하여 주거지를 옮길 의사가 있고, 학부모의 91.9%가 과외비 부담의사를 밝히고 있다.

결론적으로 제주도 학부모들의 대학 진학열은 전국보다 모든 계층에서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자녀교육을 지원하는 면에서도 모든 계층에서 자녀교육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상·중류층에서 강한 교육열을 표출하고 있다.

* 본 논문은 2000년 7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위원회에 제출된 석사학위 논문임.

目 次

〈抄 錄〉

I. 緒 論	1
1. 研究의 必要 및 目的	1
2. 研究의 問題	3
3. 研究의 制限點	8
4. 用語의 定義	8
II. 理論的 背景	10
1. 教育 熱	12
2. 社會階層의 決定要因과 文化特徵	26
3. 教育熱과 社會階層과의 關係	33
III. 研究의 方法	36
1. 調查對象	36
2. 調查道具	37
3. 資料處理	38
IV. 研究結果 및 解釋	40
1. 子女의 大學 進學熱	40
2. 學父母의 子女教育 支援 行爲	51
V. 要約 및 結論	61
1. 要 約	61
2. 結 論	65
〈 參考文獻 〉	68
〈 Abstract 〉	72
〈 附 錄 〉	75

表 目 次

〈 표Ⅱ- 1 〉 교육열의 개념분류.....	19
〈 표Ⅱ- 2 〉 우리나라 교육열의 역사적 전개과정.....	22
〈 표Ⅱ- 3 〉 사회계층별 교육열.....	25
〈 표Ⅱ- 4 〉 I. S. C. 점수에 따르는 사회계층 구분	30
〈 표Ⅱ- 5 〉 Warner 등의 사회계층 분류기준	30
〈 표Ⅱ- 6 〉 사회계층 분류 및 직업분류기준.....	31
〈 표Ⅲ- 7 〉 질문지 배부 및 회수 상황	36
〈 표Ⅲ- 8 〉 교육열의 하위요인.....	37
〈 표Ⅲ- 9 〉 사회계층별 하위요인.....	37
〈 표Ⅲ-10 〉 척도에 따른 하위요인별 문항분류	38
〈 표Ⅲ-11 〉 계층별 응답자 수	39
〈 표Ⅳ-12 〉 계층별 계획하고 있는 교육수준.....	41
〈 표Ⅳ-13 〉 계층별 대학진학 전공계열	44
〈 표Ⅳ-14 〉 계층별 진학을 계획하고 있는 지역별 고등교육기관.....	46
〈 표Ⅳ-15 〉 계층별 대학을 못 나온 사람이 겪는 문제	48
〈 표Ⅳ-16 〉 계층별 직업취득과 상급학교 선택.....	50
〈 표Ⅳ-17 〉 계층별 자녀교육비 부담 의사.....	52
〈 표Ⅳ-18 〉 계층별 자녀성적과 가정형편의 고려 정도	54
〈 표Ⅳ-19 〉 계층별 주거 이동 의사.....	56
〈 표Ⅳ-20 〉 계층별 과외비 부담 의사.....	59

圖 目 次

〈 그림Ⅱ-1 〉 한국인의 교육열의 형성 배경	23
---------------------------------	----

I. 緒 論

1. 研究의 必要 및 目的

개인의 교육은 부모가 처한 사회계층적 배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즉, 부모의 학력, 직업, 지위, 소득이 높을수록 보다 높은 수준의 학교교육을 받을 수 있고, 부모의 계층배경이 낮으면 자녀의 학교교육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게 된다. 그러므로 부모의 계층배경이 자녀의 교육에 대한 기대를 현실적으로 각기 달리하게 된다. 사회계층은 그 계층에 속한 사람들의 의식가치 및 행동특성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바, 이러한 계층의 문화 내지 행동특성은 학부모들의 교육의식이나 교육적 성취에도 각기 달리 영향을 미치며, 진학계열이나 학업성적 나아가 자녀의 직업적 진로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자녀의 학교교육에 대한 기대를 달리하게 된다. 또한 개인의 직업적·경제적 지위와 같은 사회적 성취의 정도는 그가 태어난 가정 배경이나 학력에 따라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학교교육이 개인의 직업적, 경제적 지위 획득에 가장 중요한 결정요인이 되어 모든 계층의 학부모들이 자녀를 대학에 진학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¹⁾.

이와 같이 우리나라 국민들은 모든 계층에 관계없이 학교교육에 대해 유달리 높은 교육열²⁾을 지니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높은 교육열

- 1) 김병성 외(1982), 학교교육과 사회적 성취,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서, 82-7.
- 2) 1979년 일본 총무청 청소년 대책 본부에서 한국, 일본, 미국, 영국, 프랑스, 태국 등 6개국의 10-15세 학생을 대상으로 자신이 기대하는 교육수준(고등교육)을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한국; 84.8%, 일본; 62.0%, 미국; 81.3%, 영국; 50.0%, 프랑스; 37.6%, 태국; 68.5%로 한국이 제일 높았다.

은 우리나라 교육을 특징짓는 핵심요인 중의 하나로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에서 지금까지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높은 교육열은 사회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급속한 교육의 양적 팽창을 가져왔고, 그러한 교육의 힘이 단기간 내에 경제성장 및 사회 발전을 가져온 원동력으로 작용한 것이다³⁾. 부정적인 측면으로의 교육열은 학부모들의 치맛바람, 찬조금 시비, 단편적 지식 위주의 주입식 교육, 과도한 사교육비의 출혈적 지출, 국민들간의 위화감 조성, 과열 경쟁에서 비롯되는 청소년들의 좌절과 비행, 고학력 실업 등 한국의 교육 현실을 왜곡시키고 각종 사회 문제를 유발시키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자주 지적되고 있다⁴⁾.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과열과외는 우리나라 교육정책의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다. 과열과외는 이제 일부 계층의 자녀들만이 아니라 초·중등학교의 모든 학생들에게 보편적인 현상으로 이제는 오히려 고액과외가 그 논의의 초점을 이루게 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의 높은 교육열이 과외라는 병리현상으로까지 치닫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과외 학습으로 대표되는 학생들의 학교 외 학습의 부담은 이제 단순히 학습량의 증대뿐만 아니라 재정적 부담을 넘어 학생들의 정신적·심리적 문제까지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맥락에 비추어 우리나라의 학력인플레이 현상이나 대학진학을 정점으로 하는 입시병이 높은 교육열에 의해 빚어지는 문제임을 가정하지 않을 수 없다. 입시, 과외, 학력인플레이 현상으로 연결되는 교육문제의 배후에는 높은 교육열이 잠재해있다는 가정에

3) 배종근·이미나(1988), 한국교육의 실체: 국민은 교육을 어떻게 생각하나?, 교육과학사, P.228.

4) 한준상(1990), 한국사회와 교육갈등: 한국교육계 갈등구조에 관한 이론화, 한국교육사회학연구회 편, 양서원, pp.47~61.

서 또 하나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은 모든 학부모가 그 사회경제적 배경에 관계없이 이에 연루되어 함께 교육경쟁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자녀의 학교교육은 부모의 계층적 배경에 따른 자녀의 기대 등에 의해 좌우된다. 다시 말하면 계층적 배경이 다름으로 해서 부모가 원하는 자녀의 교육기회는 학교수준이나 계열의 선택에서 다를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부모는 대부분이 계층적 배경을 넘어서 자녀를 대학까지 그것도 몇몇의 한정된 계열에 진학시키려 하는 확고한 교육의식에 지배되어 있다는 점이 무엇보다도 대학입시를 목표로 하는 과열된 입시경쟁이 사회적 문제를 빚어내고 있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가정에 비추어 볼 때 교육열의 공유는 그것이 개개인의 교육적 포부나 교육의 본질적 가치의 실현이라는 타당성을 넘어서서 필요 이상의 또는 불합리한 경쟁이라는 사회문제로 발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가정에서 본 연구는 제주도 학부모의 교육열, 교육의식 등이 계층적 배경에 관계없이 높은가 하는 것을 확인해 보려고 한다. 특히 제주도 학부모의 교육열이 사회계층별로 자녀의 대학 진학열과 자녀교육 지원행위가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조사 분석하여 높은 교육열의 실상의 일부를 밝히는데 그 목적을 두고있다.

2. 研究의 問題

교육열은 어느 시대에도 존재할 수 있는 사회적 현상이다. 특히 80

- 5) 용어의 정의에서 벗어나지 않은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교육열, 또는 교육의식이라는 용어를 뒤섞어 쓰기로 하겠다. 교육열에 대한 일반화된 정의를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년대에 들어와서 대학정원 동결 정책으로 중산층을 중심으로 교육열의 부정적인 측면은 과연 과의 등의 사회적 문제를 자아냈고, 90년대에 들어서서는 사회계층을 막론하고 대학 진학열이 고조로 자녀교육 기대수준이 인플레이션화 되어 각 분야에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6).

교육열은 사회나 시대를 달리하면서 여러 가지 양상으로 전개되어 왔음을 찾아 볼 수 있다. 조선시대의 양반계층의 자녀들을 중심으로 한 과거급제는 입시교육지향의 새로운 교육경쟁형식7)을 만들어 냈으므로써, 이른바 관준민비의 유교적 교육이념은 많은 사회적 차별을 정당화시켰다고 볼 수 있다. 이점에서 우리의 높은 교육열에는 역사성이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8). 한편 양반계층에서는 사대부로의 신분상승 성취욕구를 과거시험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것이 오늘날 고시제도로 연결되면서 학교교육과 관련된 사회적 성취의 상징으로, 즉 우리의 교육에서 중요한 교육 가치관으로 매김 되었다고 볼 수 있다9). 이와 같은 송문, 과거지향의 교육적 가치관의 전통10)은 일제로부터 독립이후 귀속적 자리세습이 차단되면서 개방사회로 이어지지 못했다. 개방사회에서는 본인의 능력, 성취, 업적에 의해서만 중요한 사회적 성취를 이룰 수 있다. 이러한 개방 사회의 특성으로 인해 지위획득에 필요한 지식이나 기능, 태도

6) 김영화·이인효·박현정(1993), 한국인의 교육열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pp.45-47.

7) 박남기(1994), “한국인의 교육열 연구를 위한 대안적 관점,” 교육학연구, 제32권, 제5호, P.193.

8) 정순우(1999), “한국사회의 교육열에 관한 역사·문화적 접근,” 교육사회학연구, 제9권, 제1호, P.4.

9) 한성신(1998), “한국여성의 교육열 탐구,” 아세아여성연구, 제37호, 숙명여자대학교 아세아여성문제연구소, P.70.

10) 박혜인(1994), “한국사회의 교육열에 대한 역사적 고찰: 과거시험이 가족·사회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12권, 제1호, P.83.

등의 능력특성을 거의 학교교육에 의해서만 보장될 수 있음으로 해서, 학교교육은 중요한 사회적 재화로 평가되어 그 기회를 얻기 위한 욕구로 확대시키기에 이르렀다고 본다. 학교교육을 통한 능력의 배양이 안된 청소년들은 사회에 적절히 적응해 나갈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한국사회의 문화 발전과 더불어 학교교육에의 요구는 다양하게 변화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대학교육의 기회가 확대되면서 직업적 지위 획득이 학력(學歷)수준과 밀접히 관련되면서 한때 우골탑(牛骨塔)으로 상징되는 대학교육은 학부모들의 경제적 능력에 관계없이 자녀교육에 대한 많은 희생을 강요해야 했다¹¹⁾. 또한 대학을 졸업해야만 사회적으로 행세 내지 인정받는 사회심리적 풍토는 자녀의 대학교육 수혜를 통해 부모들의 대리만족을 가능하게 했다¹²⁾. 따라서 한국의 모든 청소년들은 대학교육을 받아야만 인간의 가치를 드높이고 자신이 바라는 삶을 실현하는 방식¹³⁾이 된다는 인식이 확산됨으로써, 이제 대학입학을 향한 교육열은 더욱 가열되었다. 이러한 교육기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공유는 모든 청소년들이 대학에 가야한다는 성취욕구¹⁴⁾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이러한 사회심리적 동기를 밑바탕으로 한 대학진학은 한국의 현재 사회에 있어 일종의 사회적 통과 의례로 간주되기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교육열은 역사성을 지니고, 가변성, 적응성, 확산성이 있고, 자녀애와 성취욕구가 있다. 교육열은 희생이 있어야 가능하며, 심

11) 이효수(1993), “한국인의 교육열: 경제학적 고찰,” 교육진흥, 제5권, 제4호, 중앙교육연구소, P.94.

12) 추병식(1999), “집단순응과 대리만족의 교육열,” 교육사회학연구, 제9권, 제1호, P.17.

13) 박병선(1993), “한국인의 교육열: 교육학적 고찰,” 교육진흥, 제5권, 제4호, 중앙교육연구소, p.102.

14) 이종각(1998), 교육사회학 총론, 동문사, P.262.

리학적 동기욕구가 있고, 전통사회의 가치관이 있으며, 인간의 가치를 드높이고 우리의 삶을 표현하는 방식이 있다. 의례가 있으며 집단순응과 대리만족도 있다. 또 교육경쟁이 있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교육열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보면 대체로 경험적, 개념적, 역사 문화적, 사회학적, 경제학적, 교육학적, 심리학적, 사회심리학적인 면에서 접근해 왔다고 볼 수 있다. 실증적·문화기술적 접근으로의 연구는 한국인의 교육열의 실상을 밝히는데 주력한 연구¹⁵⁾를 비롯하여 경제학적 시각에서의 접근¹⁶⁾, 교육학적 접근¹⁷⁾, 심리학적 접근¹⁸⁾ 및 사회심리학적 접근¹⁹⁾으로의 연구들이 있다. 사회학적 접근으로의 연구는 지역별로 서울²⁰⁾, 부산²¹⁾, 광주²²⁾, 포항²³⁾의 도시지역의 교육열 연구와, 진도²⁴⁾등의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한 연구들이 있다. 그리고 계층의 면에서 계층간 비교연구²⁵⁾,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김희복, 1992), 도시 빈민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²⁶⁾를 들어 볼 수 있다. 한편 교육경쟁론적 시각에서 '교육전쟁'의 개념에서 접근한 연구²⁷⁾와 이들의



- 15) 김영화·이인효·박현정(1993), 전계서.
- 16) 이효수(1993), 신개논문.
- 17) 박병선(1993), 전계논문.
- 18) 한정신(1998), 전계논문.
- 19) 추병식(1999), 전계논문.
- 20) 이인효·박현정(1993), "한국인의 교육열: 교육열의 구조에 대한 문화기술," 교육진흥, 제5권 제4호.
- 21) 김희복(1992), 학부모 문화 연구: 부산지역 중산층의 교육열, 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22) 이누휴(1996), "광주의 교육열과 교육문화," 한국교육연구, 제3권 제2호, 한국교육연구소, pp.21-57.
- 23) 이재섭·박성진·송준기(1993), 포항지역 학부모의 교육의식과 태도에 관한 연구, 포항연구, 제12호.
- 24) 이기연(1992), 농촌 고교교육의 사회적 기능, 서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5) 김영화(1992), "학부모의 교육열: 사회계층간 비교를 중심으로," 교육학연구, 제30권 제4호, pp.173-197.
- 26) 조운·조옥라(1991), 도시 빈민의 삶과 공간, 서울대학교출판부.
- 27) 박남기(1994), 전계논문.

연구 경향을 종합해본 사회학적 연구²⁸⁾들을 제시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교육열에 대한 연구의 발전은 전통사회의 가치관의 측면²⁹⁾, 역사·문화적인 시각의 접근³⁰⁾에서 교육열에 대한 개념적 접근의 필요로 가열되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루어진 연구들은 지역 또는 일부 계층의 교육열에 초점을 두어 접근함으로써 계층 전반의 교육열 특성 또는 계층간 교육열의 실상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다는 점에서, 또 한국인의 교육열에 있어 계층별로 어떤 특성 내지 공통점을 명백히 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많은 문제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예컨대 특정계층의 학부모 행위를 두고 상대적으로 높고 낮은 정도를 판단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제주도 학부모를 중심으로 교육열이 계층적 배경에 차이가 없이 공통적으로 높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교육열의 계층별 특성의 일면을 확인해 보자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다루어진 보다 구체적인 문제는 김병성(1982)³¹⁾의 「학교교육과 사회적 성취」라는 실증적 연구를 근거로 하여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 1) 자녀의 상급학교 진학의욕
 - (1) 계획하고 있는 교육수준
 - (2) 대학진학 전공계열
 - (3) 계획하고 있는 고등교육기관의 지역
 - (4) 대학을 못 나온 사람이 겪는 문제

28) 이종각(1998), 전계서, pp.261-269.

29) 박혜인(1994), 전계논문.

30) 정순우(1999), 전계논문.

31) 김병성(1988), 교육사회학: 학교교육과 사회적 성취, 양서원, pp.109-123.

(5) 직업 취득과 상급학교 선택

2) 학부모의 자녀교육 지원 행위

(1) 자녀교육비 부담의사


(2) 자녀의 성적과 가정형편의 고려 정도

(3) 자녀교육을 위한 주거 이동 의사

(4) 과외비 부담의사

3. 研究의 制限點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료나 지역 여건상 제한점이 있다고 할 수 있는 바,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제한점을 갖고 있다.

- 
- 1) 본 연구에서의 표집 대상을 제주도내 초등학교 5·6학년 학부모만을 선정하였으므로 연구결과가 전국적인 규모로 일반화(一般化)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 2) 제주도 지역여건으로 보아 정확한 계층분류가 사실상 어렵고 교육열 자체가 추상적인 개념이라 교육열의 실상을 정확히 조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4. 用語의 定義

본 연구에서 사용한 용어를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1) 사회계층

미국의 사회학자 Warner의 사회신분지표지수(I.S.C.)와 홍두승의 사회계층분류 및 직업분류기준에 의거 점수의 합계가 6-10점: 상류층, 11-26점: 중류층, 27-42점: 하류층으로 규정하였다.

2) 교육열

김영화 · 이인효 · 박현정(1993)의 교육열의 개념 분류에 의거 학부모의 교육열을 “개개 학부모의 자녀 대학 진학열과 학부모의 자녀 교육 지원 행위”로 정의하였다.



II. 理論的 背景

한 사회에서 개인이 어떤 교육을 받는가의 그 수혜의 정도는 일반적으로 국가의 교육의 기회균등정책에 따라 교육의 연한, 진학의 계열, 교육의 내용 등을 규정하는 교육제도의 여하에 의해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단선제의 학제에서처럼 학교선택의 기회가 선발의 형식, 시기, 대상, 기준 등에 따라 특히 우리나라에서처럼 중앙집권과 표준화, 만기선발, 대상의 보편주의, 기준의 개인주의에 의해 주어지는 교육선발의 성격³²⁾을 지남에 따라 개인들이 그 선발에 있어 경쟁의 여지가 보다 많이 주어진다고 볼 수 있다.

우리의 이러한 선발제도는 귀속주의에서 벗어나 능력, 성취, 업적의 정도에 의해 한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직업, 소득, 수입, 사회적 인정도 등등의 면에서 결정될 수 있는 개방사회의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개인적 자질이나 그에 대한 성취의 정도는 무엇보다도 중요시된다. 이때 교육은 개인의 능력을 훈련, 또는 그 성취의 정도를 입증하는 주요한 사회적인 척도가 된다. 그리하여 관존민비, 승분지향과 같은 우리나라의 전통적 교육가치관은 현대사회에 있어서 학교교육의 가치를 더욱 증폭시키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개인의 능력이나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부모의 계층적 배경을 무릅쓰고 교육기회균등의 확대라는 우리나라 교육정책의 기본목표에 힘입어 진학률의 증대, 특히 대학진학의 기회가 계속 상승되어 왔다. 이는 한 마디로 개인의 측면보다는 학부모들이 자녀를 어떻게 해서든 남보다 높은 수준의 학교를 보냄으로써 학교 졸업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적 경쟁에서 그 우위를 확보하겠다는 경쟁의식을

32) 김신일(1986), 교육사회학, 교육과학사, p.177.

더욱 첨예화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현상은 최근 교육열이라는 개념으로 파악하여 한국인의 교육열이 사회심리적, 정책적 측면 등에서 이에 대한 연구에 관심들이 최근에 와서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사회학회를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일반적으로 부모들이 자녀교육에 대한 포부는 각기 그들의 계층적 배경과 관련하여 제약될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이에 깊이 관련된다. 각 개인이 갖는 사회계층적 지위를 결정하는 요소인 그들의 교육수준, 직업의 형태, 소득수준, 수입의 정도, 재산 등등에 따라 교육과 관련된 그들의 행위의 특성은 특히 계층적 지위가 다른 그들의 많은 교육에 대한 포부나 자녀교육에 대한 지원행위가 각기 차이가 있다. 예컨대, 중·상층의 경우는 다른 계층과 달리 교육의 가치에 대한 상승적 욕구가 매우 강하다는 주장이 일반적이라고 이야기된다³³⁾. 이점에서 교육열이나 학교교육기회의 선택은 부모의 계층요인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교육열과 사회계층과의 관계는 교육사회학적 연구의 중요한 주제가 되어왔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97.5%의 학부모가 모든 자녀를 대학까지 보내겠다고 하는 실상³⁴⁾은 그들의 계층적 배경에 관계없이 오직 자녀교육에 대한 높은 열망(aspiration)수준을 보이고 있어 이점에서 한국인의 교육열은 특이성을 지니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 그 동안 한국 교육에 당면한 그 쟁점을 입시와 입시교육의 개혁에서 찾아야 한다는 실증적 사례나 정책시각은 지금까지 우리나라 교육개혁의 우선적인 주제가 되어 왔다. 입시교육의 폐해가 아직까지도 교육개혁의 발목을 잡

33) 김병성(1988), 전계서, p.92.

34) 임연기(1998), 교육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연구, 한국교육개발원, p.47.

고있는 현실이고 많은 청소년들이 입시병, 고3병 등의 교육적 병리를 아직도 극복하지 못하는 것은 과연 과도된 교육열의 시각에서 그에 대한 분석이나 처방들이 많은 논의의 결과를 낳았다³⁵⁾.

이러한 점에서 본 장에서는 계층과 관련하여 한국인의 교육열이 어떤 성격을 갖는지를 밝히고자 함에 있어 첫째, 교육열의 성격, 둘째, 이와 관련한 사회계층과 교육적 행위의 특징을 중심으로 하여 양자간의 관계를 밝힌 여러 가지 문헌 및 연구자료들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1. 教育熱

학교교육의 양적 팽창, 고학력 사회, 학력경쟁, 과열과외, 지나친 대입 경쟁 등의 현상은 오랜 시간에 걸친 그 사회 구성원들의 교육적 요구와 사회적, 교육적 정책대안들 사이의 역동성이 만들어 놓은 결과로 본다. 이러한 배경으로 우리는 그 어느 사회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없는 한국인의 강렬한 교육열을 품고 있다.

교육열이란 “교육에 관한 열성³⁶⁾,” “교육을 받고자 하는 열의, 취학하고자 하는 욕구³⁷⁾,” “교육적 행위양식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사회적 동기의 정도³⁸⁾,” “개인 또는 집단이 지니고 있는 학교교육에 대한 특정한 요구 또는 기대와 그것을 실현시키려는 실천적 행위³⁹⁾,” 학부모의 자녀 교육기대 수준, 자녀교육비 부담수준 및 부담의지⁴⁰⁾,” “교육에

35) 정범모 외(1993), 교육의 본연을 찾아서, 나남출판사. p.112.

36) 이종각(1998), 전개서, p.262.

37) 이인호·박현정(1993), 전개논문, p.64.

38) 강창동(1996), “한국교육열의 사회학 특성에 관한 연구,” 교육문제연구, 제8집, 고려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p.212.

39) 김희복(1992), 전개논문, p.24.

40) 임연기(1998), 전개서, p.46.

대해 가지고 있는 열망과 실제로 교육을 위해 투입하는 행위⁴¹⁾”로 정의하고 있으나, 교육열의 개념은 연구자 나름대로 서로 다른 교육열의 개념 정의를 진술하여 사용하고 있다⁴²⁾.

이상의 주장에서 교육열의 개념을 규정하는 중요한 요소들은 ‘교육, 취학의 열망, 교육기대수준 그리고 교육적 행위양식과 관련하여 개인적·사회적 동기의 정도, 교육을 위해 투입하는 행위, 자녀교육비 부담수준 및 부담의지 등이며, 또한 교육열은 불가치적이고 교육열에 의한 행위결과는 나타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역사적으로 누적된 교육 문화적 측면, 시대적 성격, 사회적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한편 교육열을 정순우⁴³⁾는 교육열의 역사·문화적 해석을 위한 시각으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교육열이라는 개념은 역사성을 지닌다는 사실이다. 교육열이라는 용기 속에 담을 수 있는 내용은 우리 역사 속에서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교육에 대한 열이,’ ‘교육에 대한 강렬한 욕구’ 등 이른바 열의 이상 정후가 느껴지는 모든 현상들을 교육열이라는 개념 속에 포괄하였다가는 교육열이라는 용례는 일종의 쓰레기통으로 변질될 위험성이 높다. 따라서 ‘교육열’이 하나의 학문적 담론으로 성립 가능하기 위해서는 그 개념 속에 일정한 시대적 의미와 시대정신을 담지하여야 한다. 요컨대 ‘교육열’이라는 낱말 속에서 우리가 한 시대의 사회사를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거나, 혹은 그 시대 교육현상의 모순 구조나 갈등양상을 극명하게 감지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 이 개념을 통해 교육관이나 지식 체계에 나타나는 변화의 결정적인 모멘트를 발견할 수 있을 때 비

41) 김영화·이인호·박현정(1993), 전게서, p.13.

42) 한정신(1998), 전게논문, p.70.

43) 정순우(1999), 전게논문, pp.1~16.

로소 개념상 그 유의함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이종각⁴⁴⁾은 교육열에는 가변성, 적응성, 확산성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며 사회가 변함에 따라 교육열도 변한다. 교육현실은 교육열과 교육제도 및 정책과의 상호작용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권력을 가진 교육부가 교육제도와 정책을 변경하면, 마치 불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교육열은 새로운 제도와 정책의 틈새기¹⁾로 파고 들어간다.”

또한 교육열의 기능을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으로 이종각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긍정적인 면으로는 공 교육비를 적게 들이고도 세계적으로 유례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엄청난 교육 팽창을 이루었다는 점이다. 부정적으로 교육열이라는 말이 사용될 때는 다음과 같이 표현되는 경우가 많다. ‘과잉’교육열, ‘왜곡된’교육열, ‘이기주의적’교육열 등이며, 이런 교육열이 나타내는 부정적 측면들로서 전인적 교육의 저해, 학교 교육의 비정상화, 국민들간의 위화감 조성, 가정경제의 파탄 등을 들고 있다.”

이효수⁴⁵⁾는 한국인의 교육열은 개인, 사회, 국가 발전의 동인이 되므로 장려되어야 하지만 ‘굴절된 교육열’은 수많은 사회 병리 현상을 잉태하므로 반드시 교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경제학적으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44) 이종각(1998), 전게서, pp.261~263.

45) 이효수(1993), 전게논문, pp.92-101.

“한국 노동시장은 단층 구조를 지니고 있다. 한국 노동 시장에서는 지위와 임금 사이에 높은 상관 관계가 존재하므로 승진의 기회가 결정적으로 중요하며, 이러한 승진의 기회는 단층별로 차등적으로 주어지고 있다. 즉 하위 단층에서는 승격과 승급의 기회가 없고, 중하위 단층에서는 승급기회는 주어지나 관리층으로의 승격의 기회는 주어지지 않고 있다. 중상위 단층에서는 승급과 승격의 기회가 주어지지만, 상위 관리층으로의 승격의 기회는 사실상 제한되어 있다. 또한 상위 단층에서는 승급과 승격의 기회가 모두 주어진다. 이처럼 중위 단층이하에서는 승진의 기회가 제한적이므로 임금, 사회적 지위 등이 상대적으로 낮은데 비하여 상위 단층에서는 높은 승진 기회, 높은 소득, 높은 사회적 지위를 얻을 수 있다. 그런데 한국 노동 시장에서 상위 단층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기회는 거의 대졸 남자에게만 주어진다. 그리고 대졸 여자는 비록 자신은 상위 단층으로의 진입이 극히 제한되어 있지만, 대졸 남자와의 결혼을 통하여 사회적 계층 상승의 효과를 갖게된다. 이러한 노동 시장 구조하에서는 자연히 고학력자는 저학력자에 비하여 직무 선택의 범위가 넓고, 금전적 수익은 물론 비 금전적 수익을 더 크게 누릴 수 있는 가능성이 현저히 커진다. 이러한 현실 때문에 어떤 대학이라도 들어 갈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다.”

곽병선⁴⁶⁾은 교육을 「인간의 가치를 드높이는 과정, 우리의 삶을 표현하는 방식」이라고 규정하고, 한국인의 교육열을 「대학 입시 위주 교육」이라고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대학 진학을 위해서 모두들 맹렬히 가담하게 하는 오늘의 학교 교육에는, 그 어떤 비판에도 꿈쩍 않고 버티는 힘이 있다. 그 힘의 원천을 바

46) 곽병선(1993), 전개논문, pp.102-109.

로 우리가 살아남고자 하는 욕망, 즉 삶의 동기 자체라고 생각한다. 한국적 상황에서 삶을 영위하는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이 바로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고, 이것은 바로 한국인의 총체적 삶의 양식으로 교육의 마당을 압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 교육의 마당에서 너도나도 예외 없이 가능한 한도까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가장 높은 수준의 교육 이수증을 따겠다는 것은, 우리들 삶의 왕성한 활력을 나타내는 건강한 신호라고 볼 수 있다.”

추병식⁴⁷⁾은 교육열을 억압된 어머니의 자식을 향한 대리만족이 집단 의례적으로 재생산되는 현상으로 보고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교육을 통한 지위 획득이라는 한국의 전통적 가치는 현대 한국 사회의 발전 과정에서 합리적 해체를 경험하기보다는 오히려 의례화의 길을 걷고 있다. 다양한 점수 경쟁의 집단 행위 양식을 통해 끊임없이 재생산되는 이 의례는 지위 획득 수단으로서의 삭막한 교육을 거부하는 시대의 도전에 맞서 스스로를 더욱 신비화한다. 이 신성함의 중심에는 여전히 강고한 가족주의와 자녀 교육을 위해 희생하는 어머니의 수고가 자리한다. 건강한 교육 공동체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전문가들의 무능이 악으로 비난되지만, 한편에서는 내 자식을 남보다 뒤지게 할 수 없는 안타까운 모성이 선으로 치장된다. 교육열 의례의 이와 같은 가족주의적 한계는 전체 공동체의 통합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 신성함의 기치로 인해 의례에서 이탈하지 못하는 개인적 양심들을 자조와 위선으로 몰아 넣는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집단주의인 가부장제가 여성들의 사회적 진출을 억압하는 만큼, 어머니들의 대리만족 욕구는 강화되어 교육열 의례를 고조시킨다.”

47) 추병식(1999), 전개논문, pp.17-30.

박남기⁴⁸⁾는 한국인의 교육열에 대한 기존연구를 재분석하여 교육전쟁론이라는 대안적인 관점의 논리를 전개했다. 이 관점의 특징은 교육열을 한국 사회가 처한 계층간의 갈등이나 경쟁이 심한 정도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생존과 성공을 위한 전쟁으로 인식하고 있다. 문화, 부족한 자연 자원, 높은 인구 밀도, 그리고 제한된 취직 기회 때문에 학교에 다니는 것 이외에 다른 선택의 기회가 없을 때, 사회의 전쟁상황이 학교를 통해 표출된다고 보고 있다. 학교교육에서의 경쟁도 단순한 경쟁이 아닌 전쟁이라는 것이다.

오욱환⁴⁹⁾은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한국사회의 교육열은 어느 사회나 갖고 있는 보편적 이유와 한국사회의 고유한 상황에서 유래된 특수한 이유가 어부러진 결과라고 하고 있다. 어느 사회도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교육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 그러나 한국사회의 유별난 교육열은 이 보편적 현상에 더하여 특이하기 때문에 주목받고 있다. 이 특이성은 어느 사회에서나 볼 수 있는 보편성을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사회의 고유의 맥락에 근거해야만 설명될 수 있다면서 교육열 이론을 들어 설명하고 있다. 보편적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이론으로 인적자본론(human capital theory), 계층획득론(status attainment theory), 선별이론(screening theory), 계층경쟁론(status competition theory), 계급통제론(class control theory), 세계체제론(world system theory), 정보이론(information theory) 등의 일곱 가지 교육열에 관련된 이론들을 제시하고 있지만, 시대적, 사회적 차이를 포괄할 정도는 아니며 더욱이 한국 고유의 현상을 설명해야 할 장면에서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그래서 한국사회의 교육과 고유의 이론모형을 가설적 수준

48) 박남기(1994), 전개논문, pp.193-195.

49) 오욱환(1999), "한국사회의 교육열에 대한 고유 이론 모형의 탐색", 교육학연구, 제37권 제4호, pp.1-28.

에서 교육출세론, 집단경쟁체제론, 경험확대공유론, 외국어자본론의 네 가지 이론을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제시하였다.

“ 한국사회에서 수 차례에 걸친 사회구조와 변화는 새로운 지배집단의 등장 가능성을 가능하게 하였다. 새로 등장한 집권세력은 정권의 정당성을 확립하거나 현실적 필요 때문에 교육을 통한 계층이동을 지원하였다. 이 과정에서 교육이 출세의 지름길로 인식되게 되었고, 한 개인의 출세는 밀착된 가족·친족 관계를 통해서 하나의 원칙처럼 확산되었다. 강대국의 직·간접적 영향 아래에서 외국어는 출세의 결정적 도구로 활동되었다.”

이러한 교육열의 개념을 명료화하기 위하여 <표Ⅱ-1>와 같이 교육열의 개념을 분류하였다.

‘교육열’이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나타난 시기는 일제시대 통감부가 설치된 직후로써, ‘국권회복’이란 기치아래 일으킨 교육계몽의 열기를 표현하는 용어로 처음 사용하였다⁵⁰⁾. 이러한 교육에 대한 열망은 어느 시대에도 존재할 수 있는 사회적 현상으로 하·상·주(夏·商·周)의 상고시대로부터 동양사회에는 있었다. 우리나라는 신분적 상승을 갈망하였던 신라시대의 독서삼품과(讀書三品科) 출신들의 학업성취에 대한 강한 열망, 고려·조선시대의 과거(科擧)에의 합격을 위한 열망 등 예부터 강한 교육열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우리나라 학교교육열이 한국 근대 공교육제도 도입 이후에는

50) 한우희(1991), “보통학교에 대한 저항과 교육열,” 교육이론, 제6권 제1호, p.66.

<표 II-1> 교육열의 개념분류

분류 주거	유형	개념 및 성격	비고
주체	개인의 교육열	개인이 가지고 있는 교육열	
	학생의 교육열	개개 학생의 교육을 받고자 하는 열의	
	학부모의 교육열	자녀를 교육시키고자 하는 개개 학부모의 열의	
	교사의 교육열	학생을 교육시키고자 하는 개개 교사의 열의	
	일반성인의 교육열	학부모와 교사를 포함하는 일반성인들 개개인의 자기교육을 위한 열의	
	사회집단의 교육열	사회집단이 자라나는 세대 혹은 성인의 교육을 위하여 집단적으로 소유하고 표출하는 열의	
대상	국가의 교육열	국가나 정부라는 공공 부문의 국민의 교육을 위하여 기울이는 열의	
	사적 교육열	개인이 자신, 혹은 자신의 자녀의 교육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열의	
목적	공적 교육열	개인이나 혹은 집단이 자신이나 자기 자녀의 태두리를 벗어나 지역사회나 더 나아가 국가의 교육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열의	
	도구적 교육열	출세 수단의 획득을 위한 교육열로서 사회경제적으로 높은 지위에 도달하기(사키기)위하여 너 높은 너 좋은 교육을 받고자(받게 하고자)하는 열의 /국가 발전의 목적을 위해 국가가 투입하는 교육에 대한 열의	
범위	본질적 교육열	자신(자녀)의 성장을 위한 학습기회의 획득을 위한 교육열로서 교육의 내재적 가치를 추구하는데 보이는 열의/자라나는 세대의 전인적 성장을 위해 국가가 투입하는 교육에 대한 열의	
	협회의 취학에 대한 교육열(취학열 또는 진학열)	학교에 취학하거나 상급학교에 진학하고자 하는 열의	
교육의 형식	광의의 교육열	상급학교 진학열 뿐 아니라 인성 및 가치관 형성, 체력단련, 취업, 여가 및 취미생활 지도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교육을 위해 보이는 열의	
	학교교육열 (형식적 교육열)	학교 교육을 받고자 하는 열의	
현실감의 정도	학교의 교육열 (비형식적 교육열)	사설학원이나 종교단체 등을 포함하여 학교 외에서 비형식적 교육을 추구하는 열의	
	이상적 교육열	성적, 가정형편, 취업등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교육에 대해 막연히 가지고 있는 열의	
	현실적 교육열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여 교육에 대해 가지고 있는 열의	

출처: 김영화 · 이인효 · 박현정(1993), p.13.

을사 보호조약 이후 한일합병까지 ‘교육 구국운동과 사립학교 설립열의 고조,’ 한일합병이후 3·1독립운동까지 ‘교육열의 침체,’ 3·1독립이후 일제 말까지 ‘교육열의 부흥,’ 해방이후 1950년대까지 ‘교육열의 폭발,’ 1960년대 ‘중학교 진학열의 고조와 중학 입시경쟁의 침체화,’ 1970년대 ‘고등학교와 대학 진학열의 상승,’ 1980년대 ‘이상적 대학진학열의 지속적 상승과 현실적 대학 진학열의 정체,’ 1990년대 ‘고등교육 진학열의 분화와 공적교육열의 표출’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한국인의 교육열을 형성하게 된 배경으로 “전통적 유교관에 기초한 부모-자녀간에 공생적 관계, 인문 숭상의 전통, 체면의식 등의 문화적 요인, 과거제도, 일제의 식민 교육 정책 등의 역사적 요인, 학력에 따라 차별적인 임금 정책 등의 경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교육열을 부추기고 있고, 한국인의 자녀애의 특성(독립성이 결여됨, 상속을 많이 물려주려는 의식과도 연관됨), 가족주의적 특성(가족 중심, 공공성 변의), 관료적 출세와 지위의 추구가 최고라는 부모 세대의 정향이 반영되어 있다고 보고 있다51).” 또한 “교육체제의 요인, 사회구조의 요인, 경제 및 노동시장의 요인, 역사·문화적 요인, 정치적 요인52)”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첫째, 한국이 유교 문화권에 있다는 역사적, 문화적 이유를 들고 있고, 둘째, 계층 상승의 수단으로, 셋째, 일제 침략으로 인해 폐허가 된 나라에서 살길은 교육밖에 없다는 것으로, 넷째, 가족사상으로 설명하고 있다53). 사회적으로 지나치게 대학졸업을 선호하는 학력주의와 이른바 일류대학 졸업생을 선호하는 학벌주의 사회

51) 이종각(1998), 전계서, pp.263-264.

52) 김영화·유한구(1994), “대학진학 수요 결정 요인의 시계열 분석(1962-1992),”
교육학연구, 제32권, 제1호, pp.80-81.

53) 정범모 외 4인(1993), 전계서, p.111.

로,”와 “사회지위 획득 방식이 교육기관 후진형이기 때문이며, 계층 상승을 위한 수단은 교육이 최우선이라 하여54)” 한국인의 교육열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그리고 교육열의 형성 배경을 가족주의, 의존적 타인 지향성, 서열위주의 일원적 가치, 소속집단의 위신과 동일시하는 지위의식, 인문승상의 전통, 입신양명적 교육관, 일반적 잠재능력을 중시하는 능력관, 노력주의, 급격한 정치적, 경제적 변화와 인재에 대한 수요 급증, 후기 개발 등의 요인을 들고 있다55).

한편 한국인의 교육열 형성 배경을 학교 내적 요인에서는 교육체제 요인을 들 수 있다. 한국의 교육체제는 단선제 학제, 대학 입시 제도의 단순성 및 경직성, 고등교육정원정책과 고등교육의 팽창, 인문과정 위주의 교육과정 운영, 일반계 중심의 고등학교 팽창과 중등 단계에서의 직업교육 체제의 미비56), 제한되었던 학부모 세대의 교육기회구조, 치열한 경쟁을 유발하는 교육선발제도, ‘수익자 부담원칙’이 적용되는 학부모 교육 참여 조직57)을 들 수 있고, 학교 외적 요인으로는 사회구조적 요인, 경제 및 노동시장 구조의 요인, 역사·문화적 요인, 정치적 요인을 들 수 있다. 사회구조적 요인으로는 학력주의 사회의 제 관행, 계층 분화 및 학령 인구의 변화, 인종, 언어, 종족 등 사회 집단의 위계화를 가능하게 할 만한 요인들의 동질성을 들 수 있다. 경제 및 노동시장구조의 요인으로는 학력, 학벌에 따른 고용과 임금의 격차, 노동시장의 단층성, 대기업 중심의 산업화 등이다. 최근 우리나라는 학력별 임금 격차가 좁혀지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선진국에 비하면 그 격차가 심한 편

54) 강양원(1994), “한국인의 교육열: 교육기관 후진형 지위 상승모델의 형성과 전개(1946-1985),” 연세교육연구, 제7권, 제1호, 연세교육문제연구소, p.1.

55) 김영화·이인효·박현정(1993), 전계서, pp.61-91.

56) 최영표·이혜영·한만길(1989), 고학력화 현상의 진단과 대책: 재수생과 대졸 졸업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교육개발원, p.53.

57) 김희복(1992), 전계논문, pp.112-114.

이다. 그리고 고도의 경제 성장을 이룩한 1970년대부터 국졸과 대졸 임금의 격차는 3배 가까이 되고(선진국의 경우는 2배 이상을 넘지 않고 있음)있으며, 고졸과 대졸의 임금 격차도 거의 배 가까이 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들이 한국인의 교육열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설명하고 있다⁵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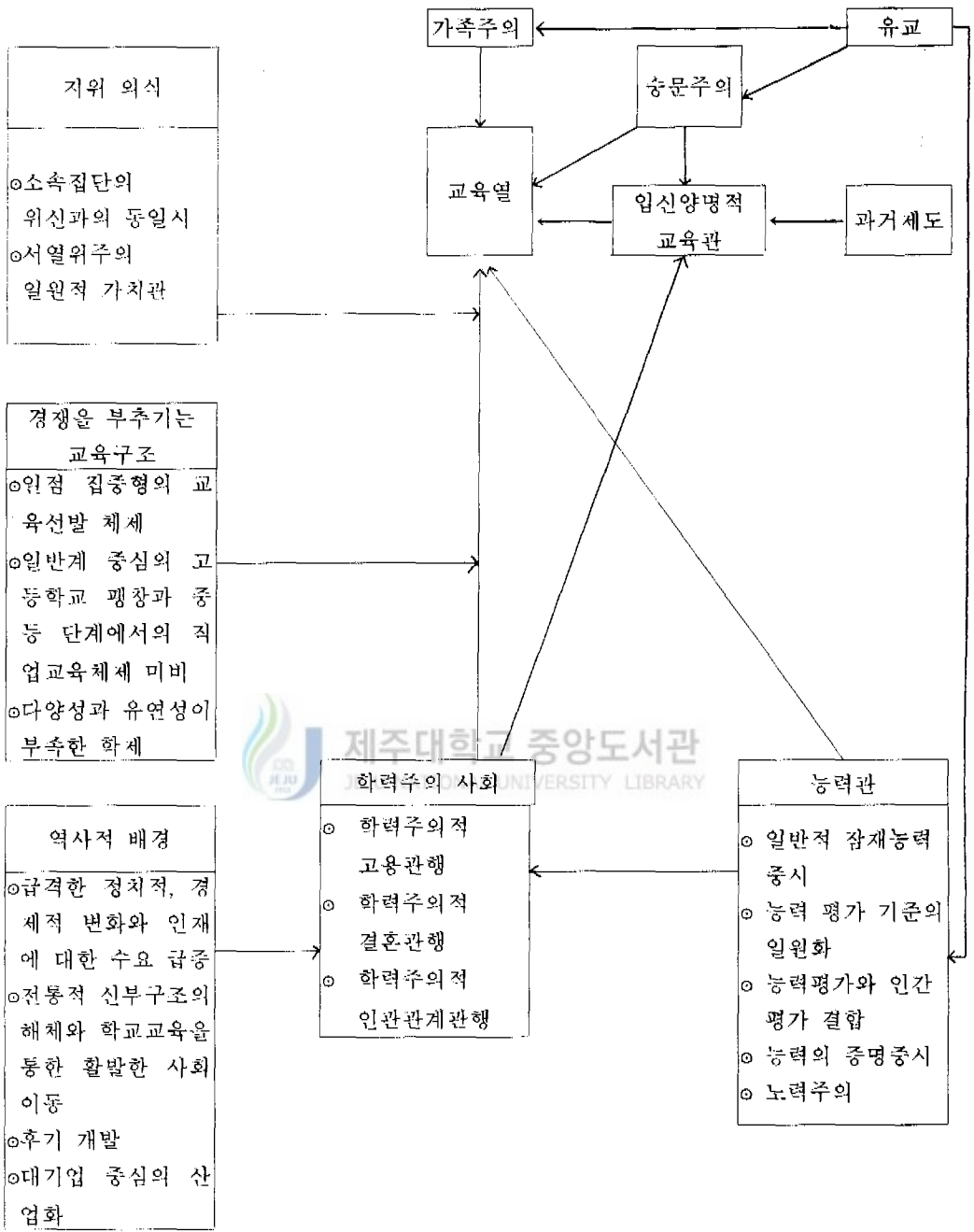
이상의 교육열의 전개과정과 형성요인들을 정리하면 <표Ⅱ-2>와 <그림Ⅱ-1>과 같다.

<표Ⅱ-2> 우리나라 교육열의 역사적 전개과정

구분	시 대	내 용
잠재기	삼국시대	신분적 상승을 갈망
	고려,조선시대	과거를 통한 문치주의
	1905-1910년	교육 구국운동과 사립학교 설립열의 고조
	1911-1919년	일제의 사립학교 탄압과 교육열의 침체
표출기	1920-1945년	교육열의 부흥
	1950년대	교육열의 폭발
팽창기	1960년대	중학교 진학열의 고조와 중학입시경쟁의 첨예화
	1970년대	고등학교와 대학진학열이 상승
	1980년대	이상적 대학진학열의 지속적 상승
	1990년대	고등교육 진학열의 분화와 공적 교육열의 표출

출처: 김영화 외(1993:21-57)의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임.

58) 김용숙(1990), 점수병 학교·학력병 학교 이대로 좋은가?, 성원사, p.247.



<그림 II-1> 한국인의 교육열의 형성 배경

자료: 김영화 · 이인효 · 박현정(1993), p.153.

이렇게 한국인의 높은 교육열은 우리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는 학력주의적(學歷主義的) 관행, 직업세계에서의 고용 관행이나 결혼 관행, 급격한 정치적, 경제적 변화와 인재에 대한 수요의 급증, 전통적 신분 구조의 해체와 학교교육을 통한 활발한 사회 이동, 후기 개발, 대기업 중심의 산업화 등이 우리사회의 학력주의를 강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우리사회에서 학력주의는 서구 산업사회나 일본에 비해 빠르고 강하게 전개되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그리고 교육경쟁을 부추기는 교육구조도 우리사회의 교육열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교육선발이 대학 입학 단계에 집중되어 있는 교육선발체제는 학생이나 학부모가 대학진학 단계에 오르기까지 대학진학의 희망을 포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고등교육 정원, 특히 4년제대학진학 수요의 경우 더 심하고, 학제의 다양성과 유연성이 부족, 특히 우리나라 고등교육체제는 다양성이 부족하여 명망도에 의해 하나의 피라미드를 이루고 있다. 피라미드가 하나일 때 서열의 상부에 도달하고자 하는 열망은 집중될 수밖에 없으며, 대학의 서열화는 일류대학에 진학하고자 하는 열망을 촉발시켜 강한 교육열을 나타내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한편 많은 사회 의식 조사나 교육에 대한 의식 조사 연구들은 우리나라 학부모들의 80-90%가 자녀를 대학에 진학시키고자 희망하며 자녀에게 희망하는 교육수준에 대한 기대가 계층별, 지역별로 별 차이 없이 전반적으로 비슷하게 높다고 보고하고 있으나, 교육열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선행연구들은 관심분제와 초점이 조금씩 다를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연구 대상을 특정 지역, 특정 계층에 한정하여 분석하였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알려진 교육열의 양상이 전 사회적인, 전 계층적인, 전 지역적 특성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직접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 중 한정된 지역(서울)에서 한정된 학부모를 대상으로 계층을 분류하고 조사한 교육열의 실상은 <표Ⅱ-3>과 같다.

<표 II-3> 사회계층별 교육열

계층	교육열 정도	교육열
상류층	보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유학을 당연하게 생각한다. · 아이들 스스로 어렸을 때부터 최종 목표학력수준을 높게 설정하게 한다. · 대학을 못 간다는 것은 상상 밖이 일로 여긴다. · 자녀의 성적에 대하여 걱정을 하지 않는다.(우연히도 자녀성적이 상위권임) · 유명한 집안인 경우 학벌을 중시하는 경향이 조금 있다. · 자녀교육에는 깊이 관여하지 않으며 과외에 의존하나 자립을 지도한다. · 공부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 · 부모가 직·간접적으로 제공하는 문화적 자산이 풍부하다. · 예절교육을 엄격히 하고 다양한 경험을 중시한다. · 아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목표가 있으나 딸에게는 보다 많은 자유를 준다. · 장남과 장손에 대한 기대가 각별하다. · 이미 진로가 많이 정해져 있다. · 좋은 학교를 찾는데 매우 신경을 쓰며, 학교에 적극 참여 의견을 제시한다.
중류층	높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좋은 대학진학을 위한 강박관념적 양상을 나타낸다. · 재수를 시켜서라도 연·고대는 가야한다고 여긴다. ·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자식이 평생을 좌우한다고 여긴다. · 어머니들은 자녀성적이 안 좋으면 남편에게 죄지은 사람처럼 멧멧치 못하다 · 자녀들의 학교공부를 직접 지도하며 가정교사로서의 엄마 역할을 한다. · 자녀의 학교와의 관계도 경제적 이유보다는 성적이 더 중요한 관건이 된다 · 과외교습을 시키며, 학교 진도 보다 앞서 나가야 한다. · 과외는 가정경제에 심각한 부담이 되지만 남한테 뒤지지 않으려 한다. · 원망 성취 혹은 심리적 위안 수단으로 종교에 의지한다. · 자녀의 학교나 교사에 대하여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려 한다. · 자녀교육에 대한 강렬한 욕망을 갖는다.
서민층	낮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진학을 쉽게 포기한다. · 자녀들이 공부 잘해서 대학에 가 주었으면 하는 막연한 기대가 있다. · 실업계 진학을 선택하나 대학에 들어가면 집을 팔아서라도 학비를 낸다. · 구체적인 직업으로는 선생님이 인기다. · 자녀의 학습지도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는다. · 학교공부의 성취만을 강조한다. · 학교에 잘 찾아가지 않으며, 학교 임원도 원하지 않는다.
농촌	낮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민들의 배경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중류층처럼 강한 교육열은 없다. · 4년제 대학을 희망하며, 좋은 직업, 좋은 배우자를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 · 소수 학생이 도시 지역학교로 이동하며, 학교 자율학습과 독서실에 보낸다. · 적극적으로 학교에 참여하지 않으며, 자녀성적에 야단치지 않는다. · 대학에 합격해 주기를 종교에 의지하며 교회보다는 절에 의존한다.

출처: 김영화 외(1993:167-323)의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임.

이상의 교육열에 대한 내용을 요약하면, 교육열은 ‘교육, 취학의 열망, 교육기대수준 그리고 교육적 행위양식과 관련하여 개인적·사회적 동기의 정도, 교육을 위해 투입하는 행위, 자녀교육비 부담수준 및 부담의지 등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연구자 나름대로 서로 다른 교육열의 개념을 정의하여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교육열을 “자녀를 교육시키고자 하는 개개 학부모의 열의” 즉 「개개 학부모의 자녀 내이 신학열과 자녀교육 지원 행위」로 정의하였다.

교육열은 역사성을 지니고 가변성·적응성·확산성이 있다. 또한 교육열은 개인, 사회, 국가 발전의 동인이 되지만, ‘굴절된 교육열’은 수많은 사회병리 현상을 잉태한다. 어머니의 자식을 향한 대리만족으로 교육열이 재생산되며, 생존과 성공을 위한 교육전쟁을 야기시키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교육열은 멀리 유교사상 및 과거제도에서 유래된 숭문주의, 가족주의, 입신양면적교육관에 의해 생겨났으며, 가까이 급격한 정치적, 경제적 변화와 인재에 대한 수요 급증, 전통적 신분구조의 해체와 학교교육을 통한 활발한 사회 이동, 후기 개발, 대기업 중심의 산업화가 교육열을 부추겼고, 이러한 교육열은 ‘도구적 교육열’로써 잠재기, 표출기, 팽창기를 거치면서 전개되어 오늘날 중류층 이상에서 강한 교육열로 표출되고 있다.

2. 社會階層의 決定要因과 文化特徵

사람은 일정한 사회적 지위(Social Status)를 갖게 되며, 생활에 필요한 수입을 얻기 위하여 직업을 갖게 되고, 또한 각자의 지위에 따른 능력 발휘나 기술의 수준도 모두 다르게 마련이다. 따라서 각자의 지위

나 능력 그리고 기술에 따른 보수, 사회적 평가, 역할 수행이 달라지게 된다. 이와 같이 위계적(位階的)인 사회체제 속에서 직업, 배경, 개인의 능력, 기술 등에 의하여 사회적 특권, 이익 등이 사회적으로 불평등하게 분배되어 있는 데, 이런 가운데서 서로 비슷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의 사회계층으로 형성된다⁵⁹⁾.

사회계층은 사회에 따라 그 형태나 구조가 동일하지 않고 계층분류도 다양하여 한 사회에서의 구분이 다른 사회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반화가 어렵고 상대적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사회계층을 규정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과학적인 기준이 있어야 하고 사회계층을 구분하는 기준은 각 지역사회의 유형이나 크기에 따라 달라야 한다⁶⁰⁾.

김영모⁶¹⁾의 사회계층 연구에서 조사대상의 평가에 의한 계층분류의 기준을 보면 재산, 학력이 가장 중요한 평가 요인이고, 그 다음이 직업, 수입 등의 순이라고 하고 있다. 그리고 김영모(1981)⁶²⁾의 주관적 방법에 의하여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상층 3.5%, 중층 62.9%, 하층 33.2%, 불분명 0.4%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신을 중류계층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실제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영복⁶³⁾은 직업, 교육, 수입이 계층분류의 가장 중요한 척도가 된다고 하였으며, 계층구분도 분류기준에 의한 비슷한 성향을 보이는 세 계층을 한데 묶어 상, 중, 하층으로 나누는 것이 관례로 되고 있다고 한다.

Warner 등에 의하면 어떤 사회에도 사회계층은 존재하며, 사회계층

59) 김병성(1994), 교육과 사회, 학지사, P.124.

60) 주락원(1984), 사회학 개론, 예문관, p.203.

61) 김영모(1969), 서울시의 사회계층과 계급구조에 관한 연구, 을유문화사, p.606.

62) 김영모(1981), 한국사회론, 한국사회과학연구소 편, 민음사, p.64.

63) 고영복(1976), 현대사회학, 법문사, p.211.

은 단순히 경제적 요인에 의해서만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집단 구성원의 인정과 용인에 의하여 정해지며, 이러한 사회에도 행동양식이나 생활태도에 있어 늘 과거와 혈통을 중심으로 사는 상층과 미래에 희망을 두고 사는 중층 그리고 현재에 사는 하층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다⁶⁴⁾.

우리나라의 경우 김병성(1988)⁶⁵⁾은 사회계층은 일정수의 사람들의 집단에 공통적인 행동방식과 가치체계 그리고 생활태도를 갖게 된다고 하며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상류의 상하계층을 포함하여 상류의 행동특성은 가문과 전통을 존중하는 보수적인 경향이 짙다. 이들은 대개 상속받은 유산으로 살아가고 사회적으로 저명한 가정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때로는 매우 배타적인 가치관을 나타낸다. 이 계층에 속한 사람들은 대체로 교육을 중요시 하기는 하나 사회적 상승이동을 위한 것보다는 이들의 현재 지위 또는 품위를 유지하기 위한 교양 교육에 더 관심을 갖게 된다. 중류 상층은 미래지향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사회활동에 넓게 참여하는 행동특성을 가진다. 사회적으로 저명한 가문의 전통은 없으나 자신의 노력으로 현재의 위치를 이룩한 경우가 많다. 사회적 상승이동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고 만족을 억제하는 행동유형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재산축적에 대한 애착심이 높고 교육을 사회적 상승이동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짙다. 성공은 노력의 결과라고 믿고 일을 열심히 하는 태도를 가지며 행동의 폭이 넓고 사교적이며 독립심이 강하다. 학교교육을 중시하기 때문에 자녀의 교육에 대단한 열의를 보여 주고 있다. 중류 하층은 이른바 일반시민 계층으로서 인구의 많은 수가 이 계층에 속한다. 이들은 미래지향적이고 교육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 행동특성은 검소하고 경제적 독립성을 중요시한다. 학교와 교회를 존중하며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대중적인 소시민들이다. 어떤 면에서는 중류 상층과 같이 이상적인

64) 김선호(1961), 사회와 교육, 선명문화사, p.61.

65) 김병성(1988), 전개서, pp.92-93.

교육환경을 이룬다. 하류상층은 주로 근로계층으로서 중류와 하류계층의 행동특성을 함께 지니고 있다. 영세상인 자급자족을 하는 영세 농가가 여기에 속하며, 부인들도 대개 일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들은 텔레비전, 저속한 대중잡지, 그리고 주간지 등을 보기를 좋아한다. 교육에 대한 관심은 있지만 경제적 여건이 허락하지 않아 자녀들은 중등교육을 마치는 데도 힘겨워하며 고등교육은 매우 드물게 보내게 된다. 하류 하층은 몇 세대를 사회 최하층에서 생활하는 사람들로써 막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대체로 미래에 대한 기대가 거의 없으며 현재 지향적 숙명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자녀들은 학교에서 일탈 행위나 비행을 저지르는 문제아나 지진아가 많다.“

사회계층을 분석하는 접근방법에는 주관적 방법, 객관적 방법 및 평판적 접근법 등의 세 가지가 있는데, 주관적 접근법은 사람들이 스스로 어떤 계층에 속한다고 생각하는지를 자기 평가로 알아보는 방법인 바, 사회성원의 귀속의식에 의하여 자신이 어떤 계층에 속하고 있는가를 조사하여 사회계층을 분석하는 방법이다. 객관적 방법은 사람의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직업, 학력, 수입, 재산 등 측정 가능한 지표를 사용하여 계층을 분석하는 방법이다. 평판적 접근방법은 사회의 성원들이 서로 상대의 사회적 지위를 평가한 결과에 따라 각자의 소속 계층을 판정하는 방법이다⁶⁶⁾.

Warner 등⁶⁷⁾은 사회계층을 구분하는 기준으로서 사회신분지표지수(Index of Status Characteristics)를 작성한 바 있는데, 이것은 오늘날 사회계층을 구분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하나의 척도가 되어 있다.

66) 김영자(1986), 사회교육, 창학사, p.187.

67) Warner, W. L. et al(1949), Social class in America: A Model for procedure for measure of social status, Chicago Science Research Associates, p.12.을 인용한 김병성(1988), 교육사회학, 양서원.

그가 사용한 분류요인은 <표Ⅱ-4>에서 보는 바와 같이 6항목으로 되어 있으며, 각 항목마다 점수를 배정하여 이에 따라 피조사자의 총 score를 계산한 결과 6점에서 10점 사이는 상류층, 11점에서 18점까지는 중류상층 등으로 구분하여 <표Ⅱ-5>와 같이 분류하였다.

<표Ⅱ-4> I.S.C. 점수에 따르는 사회계층 분류요인

①직업의 종류(Occupation)
②교육수준(Level of Education)
③수입액(Amount of Income)
④수입원(Source of Income)
⑤주거가옥형태(Type of House)
⑥거주지역(Dwelling Area)

<표Ⅱ-5> Warner 등의 사회계층 분류기준

사회계층	계층특성지표(I.S.C.)점수
상류층 (Upper Class)	6-10점
중류상층 (Upper Middle Class)	11-18점
중류하층 (Lower Middle Class)	19-26점
하류상층 (Upper Lower Class)	27-31점
하류하층 (Lower Lower Class)	32-42점

한편 홍두승⁶⁸⁾은 사회계층분류 및 직업분류를 <표Ⅱ-6>과 같이 하였다.

68) 홍두승(1982), 경제발전과 사회계층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과학연합회, p.20.

<표Ⅱ-6> 사회계층분류 및 직업분류 기준표

기준지표 요인	내용의 정도차		지위특성 지수
1.직업	상류군	자본가, 대기업주, 정부의 고위관리	1
	중상군	고위전문직(의사, 엔지니어, 회계사, 변호사, 판검사, 대학교수 등), 정부의 관리직 공무원, 일반회사의 고급관리직 사원(피고용).	2
	신중간군	하위전문직(의료보조원, 테크니션, 교사 등), 사무원 감독자, 판매감독자, 서비스업 감독자, 정부의 하급공무원, 일반회사의 사무직 사원, 판매종사자(피고용), 경찰관 및 보안종사자	3
	구중간군	자영업인 및 자영업서비스: 관리직 종사자(고용주) 하위전문직 고용주(영세자영업자), 판매종사자, 요식, 숙박업 종사자, 기타 서비스 종사자	4
		자영기능인: 생산감독(고용주 및 영세자영업자), 생산 및 판매종사자(고용주 및 영세자영업자)--양화점주인등, 개인택시 운전사 등.	5
	근로군	서비스직 종사자(피고용), 생산감독(피고용), 숙련공, 반숙련공(피고용), 단순 노동자	6
	하류군	행상등, 가정부 및 관련가사 종사자, 청소원 등, 단순노동자(임시, 일일 고용), 분류불능 및 실직자	7
2.교육 수준	대학원졸 이상		1
	대학졸업		2
	전문대졸업		3
	고교졸업		4
	중교졸업		5
	초교졸업		6
	초출이하(한글해독)		7
3.소득 액	301만원 이상		1
	200-300만원 미만		2
	150-200만원 미만		3
	100-150만원 미만		4
	70-100만원 미만		5
	50-70만원 미만		6
	50만원 미만		7
4.소득원	자영		1
	월급		2
	임대수입		3
	이자수입		4
	연금		5
	일급		6
	시간급		7
5.거주 지역	아파트 밀집지역, 일반주거지역(잘사는 동네)		1
	아파트 밀집지역, 일반주거지역(중간정도)		2
	아파트 밀집지역, 일반주거지역(못사는 동네)		3
	주거, 상가 복합지역		4
	상가지역		5
	공장지역		6
	아주 못사는 동네		7

6.주택 의 종류	APT60평 이상, 단독주택100평 이상, 연립주택60평 이상	1
	APT34-60평, 단독주택50-99평, 연립 34-60평	2
	APT34평 이하, 단독50평 이하, 연립34평 이하	3
	다세대 주택	4
	아파트, 단독, 연립, 다세대 주택 중 독채전세	5
	아파트, 단독, 연립, 다세대 주택 중 독채월세	6
	아파트, 단독, 연립, 다세대 주택 중 방일부 및 월세	7

출처: 홍두승, 1982 ; 20

이상의 사회계층 결정요인과 문화 특징을 요약하면, 사회계층 결정요인을 Warner 등(1949)은 직업, 주거지역, 가옥종류, 수입액, 수입원, 교육정도로, 김영모(1969)는 재산, 학력, 직업, 수입으로, 고영복(1976)은 직업, 교육, 수입으로, 홍두승(1982)은 Warner 등의 결정요인과 같으며, 김병성(1994)은 직업, 배경, 개인의 능력 및 기술 등을 사회계층의 결정요인으로 꼽고 있다.

사회계층별 문화의 차이는 상류층은 가문과 전통을 존중하며 현재지위 또는 품위를 유지하기 위한 교양교육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중류층은 미래지향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적 상승이동에 관심이 높고, 학교교육을 중시하고 있어 자녀의 교육에 대한 대단한 열의를 나타내고 있다. 하류층은 교육에는 관심이 많으나 경제적 여건이 미치지 않아 자녀의 고등교육을 험겨워 하고 있다.

이상에서 본 연구에서는 객관적 방법을 택하여 사회계층구분의 결정요인을 Warner 외(1949)의 결정요인에 따라 계층을 분류했고, 지위특성지수는 홍두승(1982)의 사회계층분류 및 직업분류기준표에 따랐다. 제시된 6가지 지표를 각각 7단계로 나누고, 이들에게 1점에서 7점까지 점수를 부여하여 점수의 합계가 6-10점은 상류층, 11-26점은 중류층, 27-42점은 하류층으로 분류하였다. Warner 외의 중상층과 중하층은 중류층으로, 하상층과 하하층은 하류층으로 묶어 구분하였다.

3. 教育熱과 社會階層과의 關係

교육의 사회적 기능 가운데 그 중요한 한가지는 사회 각 분야에서 요구되는 인력을 길러 개인의 능력과 성취의 정도에 따라 선발하고 처리하여 배치하는 사회충원의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이다. 학교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개인이 보여주는 학업성취의 정도에 따라 교육선발이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개인이 받을 학교수준이나 교육내용의 계열이 각기 달라지게 된다. 이는 개인의 면에서 교육받은 정도를 의미하며 학력(學歷)을 결정하게 되고, 이러한 학력은 개방사회, 법적 사회에 있어 개인의 직업이나 사회·경제적 지위를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기능을 통해서만 사회적 지위의 배분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육은 민주산업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의 계층이동을 도모하고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 간주된다. 종전의 귀속적 지위에서 벗어나 각기 획득한 능력과 성취한 업적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직업적 지위가 배분되는 사회적 선발의 성격을 수행하고 있는 학교교육의 역할이 현대사회에 와서 개인이나 집단의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한 매우 중요한 통로와 수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남보다 다른 수월한 교육적 성취는 특히 경쟁사회에 있어 중요한 사회적 재화가 되기에 이른 것이다. 그러므로 교육을 받았다고 하는 의미는 그 과정을 통해 획득되는 사람됨의 가치를 넘어서서 사회적 선발의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그가 얼마만한, 그리고 어떠한 교육을 받았느냐가 보다 중요해지게 된다.

이와 같이 현재사회에서 학교의 사회적 선발기능이 중요시됨에 따라 개인들의 교육적 요구 또한 커지지 않을 수 없게 되었으며 이러한 교육

수혜의 동기나 열망, 포부의 수준은 더욱 높아지지 않을 수 없는, 즉 누구나 '더 많은' 교육을 받고자 하는 교육열의 팽창을 맞기에 이른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승문·관준민비와 선비적 가문의식의 맥락 위에서 발전되어온 한국인의 교육열은 현대사회에서 학교의 사회적 선받기능과 맞물려 특이한 양상을 빚게 되었다. 특히 한국사회가 산업자본주의 사회로 이행되는 과정에서 주어지는 학교교육의 수혜정도에 의해, 다시 말해서, 졸업장, 기술, 자격, 학위 등과 같은 학교의 증거를 통해서 우선, 또는 유리하게 주어져 왔기 때문에 교육의 기회균등정책에 힘입어 학력주의, 내지는 학력팽창을 더욱 부채질하기에 이르렀다. 한마디로 교육열의 정도가 사회계층의 이동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는 사회적 인식이 보편화됨으로써 누구나 대학진학으로 이어지고 고학력사회를 맞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교육열이 사회계층의 이동과 실제에 어떠한 관련을 갖는지에 대한 연구결과들은 일관되어 있지 않다. 즉 개인의 상층이동을 촉진해 보다 평등사회의 실현에 접근하게 된다는 긍정적 입장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학교교육의 결과가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회의적 관점이 대비되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거시적인 논의와는 달리 계층이동과 관련된 학교교육의 효과에 대한 김병성의 연구는 한 사회의 특징이나 사회발전의 정도와 관련하여 논의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⁶⁹⁾.

계층상승이동의 주요요인을 직업, 소득, 교육수준이라고 했을 때, 이 세요인 중 교육수준이 우리나라 성인의 직업적, 경제적 지위 획득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런데 각 계층별로 처한 교육적 환경이 다름

69) 김병성(1988), 진세서, 한국개발원 연구보고서.

에 따라, 즉 각 계층적 특성에 따라 '교육'에 대한 인식과 학업성취, 학력취득에 대한 가치 부여가 다를 뿐만 아니라 학업성취나 교육적인 발달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계층별에 따라 물리적 환경 및 교육비를 부담할 경제적 능력에 차이가 있으며, 자녀들 스스로 계획하는 교육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적 환경을 달리 제공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처한 여건과 자녀에게 제공할 수 있는 교육환경이 계층에 따라 차이가 나며, 따라서 이들이 자녀에게 기대하고 있는 교육수준이나,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 부모들이 기울이는 구체적인 노력과 협조의 양상 또한 계층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다. 그리고 개인의 직업적 지위, 경제적 지위를 나타내는 사회적 성취를 위한 행동도 다를 수밖에 없다고 가정할 수 있다.

적어도 김병성의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 성인의 직업적, 경제적 지위획득에 가장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학교교육이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교요인 중에서도 개인의 교육수준(학력)이 가장 중요하며, 다음으로 직업적 지위에 영향을 주는 개인특성으로는 지적능력과 개인의 노력이 그리고 가정배경이다. 가정배경은 개인의 직업, 경제적 성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이외에도 학교교육과 개인특성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작용하는 비중이 더 크다. 그러한 영향의 경로는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중에서도 부의 교육정도→본인의 교육수준→사회·경제적 지위의 인과적인 관계를 나타낸다. 그 다음으로 학교의 질, 그리고 학교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학부모들은 좋은 학교에 보내려고 온갖 수단을 다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사회적 성취를 위해 좋은 대학에 가야한다는 강박관념 속에 교육열은 모든 계층에서 가연될 수밖에 없는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Ⅲ. 研究의 方法

본 연구는 학부모의 사회계층에 따른 교육열의 실상을 알아보기 위하여 질문지의 방법을 통해서 수행되었다. 질문지 조사와 관련하여 조사 대상의 선정, 질문지 제작, 결과분석을 위한 자료처리 방법 등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調査對象

본 연구의 대상은 제주도 학부모의 사회계층 배경을 대표할 수 있도록 계층지역을 5곳으로 선정(시지역은 가·나·다급지⁷⁰⁾, 읍·면지역, 농·어촌지역)하였다. 또한, 제주시, 서귀포지역은 급지별로 각각 1교, 읍·면지역 및 농·어촌 지역은 동·서로 각각 1교씩 10개교를 선정하여 그 지역에 위치한 초등학교 6학년(농·어촌지역은 5·6학년) 2학급을 무선표집 하였고, 조사 기간은 2000년 3월 23일부터 4월 15일까지로 하였다.

질문지는 학생을 통해 학부모에게 직접 보내어졌고 학부모로 하여금 자유 응답토록 하여 그 결과를 학생을 통해 담임교사가 회수하는 방식을 택했다. 질문지 배부 및 회수 상황은 <표Ⅲ-7>과 같다.

<표Ⅲ-7> 질문지 배부 및 회수 상황

	N(%)		
구분	배부부수	회수부수	사용부수
시청소재지	410(6개교)	343(83.6)	327(95.3)
읍·면사무소 소재지	180(2개교)	163(90.5)	156(95.7)
농·어촌지역	140(2개교)	104(74.3)	100(96.2)
계	730(10개교)	610(83.6)	583(95.6)

70) 시지역의 급지는 제주도교육청 인사관리규정(2000년도)을 참조하였음.

2. 調查道具

본 연구에서는 질문지를 도구로 하여 조사했다. 이론적 배경을 통하여 얻은 교육열의 하위요인과 사회계층의 하위요인을 <표Ⅲ-8,9>과 같이 추출하여 하위요인별 문항내용을 <표Ⅲ-10>과 같이 구성하여 질문지를 작성하였다. (부록 I 설문지 참조)

<표Ⅲ-8> 교육열의 하위요인

연구자	하위요인
김영화(1992)	교육에 대한 사회적 수요
김희복(1992)	학교교육에 대한 특정한 요구, 기대를 실현시키려는 실천적 행위
김영희외(1993)	교육에 대해 가지고 있는 열망과 실제로 투입하는 행위
이인효·박현정(1993)	교육을 받고자 하는 열의, 취학하고자 하는 욕구
강창동(1996)	교육적 행위 양식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사회적 동기의 정도
이종각(1998)	교육에 대한 열성
임연기(1998)	학부모의 자녀교육 기대수준, 자녀 교육비 부담수준 및 부담의지

교육열의 결정요인은 위의 여러 학자들의 주장을 포괄적으로 받아들여 <표Ⅲ-8>를 근거로 교육열의 측정변인을 “대학을 못나온 사람이 겪는 문제, 직업취득과 상급학교 선택, 자녀성적과 가정형편의 고려 정도, 계획하고 있는 교육수준, 진학을 계획하고 있는 지역별 고등교육기관, 대학진학 전공계열, 자녀교육비 부담의사, 주거 이동의사, 과외비 부담의사”의 9개로 정하였다.

<표Ⅲ-9> 사회계층별 하위요인

연구자	하위요인
Warner(1949)	직업, 주거지역, 가족종류, 수입액, 수입원, 교육정도
김영보(1969)	재산, 학력, 직업, 수입
고영복(1976)	직업, 교육, 수입
홍두승(1982)	직업, 주거지역, 가족종류, 수입액, 수입원, 교육정도
김병성(1994)	직업, 배경, 개인의 능력 및 기술

사회계층별 분류기준은 <표Ⅲ-9>를 근거로 하여 학자들이 주장하는 사회계층별 분류기준의 하위요인을 종합하여 “직업, 주거지역, 가족종류, 수입액, 수입원, 교육정도”의 6개를 측정변인으로 하여 척도화 하였다.

<표Ⅲ-10> 척도에 따른 하위요인별 문항분류

척도	하위요인	요인내용	문항 수	문항 번호
응답자의 계층적 배경	교육수준		1	1
	직업		1	2
	수입		1	3
	소득원		1	4
	주택의종류		1	5
	거주지역		1	6
교육열	자녀의 대학 진학열	계획하고 있는 교육수준	1	1
		계획하고 있는 대학의 전공계열	1	2
		계획하고 있는 대학의 지역	1	3
		대학을 못나온 사람이 겪는 문제	1	4
		직업취득과 대학의 선택	1	5
	학부모의 자녀교육 지원행위	자녀교육비 부담의사	1	6
		자녀의 성적과 가정행편의 고려 정도	1	7
		주거 이동의사	1	8
		과외비 부담의사	1	9

3. 資料處理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자료의 처리과정은 다음 사항들이 고려되었다.

- 1) 회수된 자료 중 무성의한 반응을 보이거나 사용하기에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27부는 자료 통계처리에서 제외되어 최종적으로는

583부가 그 대상이 되었다.

- 2) 사회계층 분류는 이론적 배경에서 얻은 6개의 결정요인에 홍두승의 지위특성지수에 의거 각기 1점에서 7점을 부여하여 총 점수의 합계가 6-10점은 상류층, 11-26점은 중류층, 27-42점은 하류층으로 분류하였다. 그 결과는 <표Ⅲ-11>과 같다.

<표Ⅲ-11> 계층별 응답자 수

사회계층	응답자 수	N(%)
상류층	51	(8.7)
중류층	428	(73.4)
하류층	104	(17.8)
계	583	(100)

- 3) 학부모의 교육열 분석은 9가지 내용에 따라 학부모 전체 및 계층별로 반응빈도를 집계하여 백분율을 행과 열로 산출하여 해석하였으며, SPSS 교본에 의거 계층별 χ^2 -검정을 하였다.

IV. 研究結果 및 解釋

본 연구는 사회계층에 따른 학부모의 교육열의 실상을 확인해 보고자 한 것으로서, 자녀 대학 진학열과 자녀교육 지원행위의 두 가지하위요인으로 나누어 분석해 보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분석하는데는 질문지에 응답한 빈도를 계층별로 χ^2 -검정을 하였으며 전체, 계층별, 계층간 분포 상황을 행과 열로 백분율을 산출하여 그 결과를 해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했다.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子女의 大學 進學熱

학력의 가치는 사회변화와 함께 달라지고 있다. 대학교육 수혜자 수가 적은 시절에는 대학 졸업장의 가치가 매우 높았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대학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력경쟁은 상승일로로 치 달았다. 대학교육의 기회가 보편화되면서 졸업장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아지기 때문에 질에 따라 그 경쟁 양상은 더욱 치열해 졌다. 이와 같이 대학 진학열이 일종의 인플레이 현상을 빚게 됨에 따라 여러 가지 많은 사회적 문제를 빚어내게 되었다. 여기에서는 계획하고 있는 교육수준, 대학 진학 전공계열, 계획하고 있는 대학의 지역, 대학을 못 나온 사람이 겪는 문제, 직업취득과 대학 선택의 실상을 분석·기술하였다.

학교교육에 대한 열망은 학력주의(學歷主義) 사회가 고착화 될수록 강하게 나타난다. 학교교육이 지위 획득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의 하나가 되고있어 누구나 학교교육을 더 많이 받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직업 세계에서 대학 졸업장의 가치가 점점 낮아지고 있고 출세하고

성공하는데 첫째로 중요한 것은 ‘성실성’이며 다음으로 ‘학벌,’ ‘지식과 기술’이라는 연구보고(71)가 있다. 여기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은 출세하고 성공하는데 학벌 못지 않게 지식과 기술 등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으며, 대인관계 능력, 부모의 경제적 뒷받침 보다 자신의 성실성이 훨씬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즉 우리사회에서는 출세하고 성공하는데 자신의 실력(지식과 기술)과 성실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녀를 실제로 어느 수준까지 교육시킬 계획인가를 물어보았다. 그 결과 응답은 <표IV-12>와 같다.

<표IV-12> 계층별 계획하고 있는 교육수준

구분	계층	상	중	하	전체	비고
인문고 졸업			2 (17.4)	2 (82.6)	4 (0.7)	χ^2 - 48.981 df=8 **p<.01
			5 (22.4)	4 (77.6)	9 (1.5)	
전문대학 졸업			35 (30.2)	20 (69.8)	55 (9.4)	
4년제대학 졸업		18 (24.8)	212 (34.7)	60 (40.5)	290 (49.7)	
		33 (57.2)	174 (33.2)	18 (14.1)	225 (38.6)	
석사학위 이상		64.7 (40.7)	40.7 (17.3)	17.3 (17.3)		
		51 (8.7)	428 (73.4)	104 (17.9)	583	

*()의 상은 행, 하는 열의 %임

71) 임연기(1998), 전계서, p.51.

전체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교육수준은 49.7%가 4년제 대학을 계획하고 있으며, 38.6%는 석사학위 이상이고 전문대학은 9.4%이다. 고등학교는 2.2%에 불과하다. 여기에서 전문대학까지 포함한다면 97.8%가 대학진학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층별로 보면 4년제 대학은 상류층 35.3%, 중류층 49.5%, 하류층 57.6%이고, 전문대학은 상류층 0%, 중류층 8.2%, 하류층 19.2%이며, 석사학위 이상은 상류층 63.1%, 중류층 40.6%, 하류층 17.3%으로 상류층 100%, 중류층 98.5%, 하류층 94.3%가 대학에 보내겠다고 계획하고 있다. 고등학교(인문고와 실업고 포함) 졸업만을 계획하고 있는 학부모는 중류층 1.5%, 하류층 5.7%에 불과하다.

대학진학을 계획하고 있는 응답자의 계층별 배경을 보면 고등학교만을 졸업시키겠다고 계획하고 있는 중·하류층의 2.2%에서 하류층(80.1%)이 중류층(19.9%)보다 훨씬 많고, 전문대학 졸업을 계획하고 있는 중·하류층의 9.4%에서 하류층(69.8%)이 중류층(30.2%)보다 배 이상 높다. 또한 4년제 대학을 계획하고 있는 전체의 49.8%에서 상류층: 24.8%, 중류층: 34.7%, 하류층: 40.5%로써 하, 중, 상의 계층 순이며, 석사학위 이상을 계획하고 있는 전체의 38.6%에서 상류층: 75.2%, 중류층 33.2%, 하류층: 14.1%로 상류층이 제일 높다. 이러한 응답으로 보아 계층간 계획하고 있는 교육수준의 차이는 계층이 높을수록 자녀들의 고학력을 계획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대부분 상·중류층은 4년제 대학 및 석사학위 이상, 하류층은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을 계획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계획하고 있는 교육수준과 계층별 사이에는 유의수준 $p < .01$ 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주도 학부모가 자녀의 대학교육에 대해 계획하고 있는 학교수준(전문대학 이상)이 97.8%에 이르고 있다는 점은 앞서 언급하였다. 이를

선행연구와 비교해 보면, 임연기(1998)⁷²⁾의 연구에서는 97.5%로 나타나 전국을 대상으로 하여 표집한 수준보다 약간 상회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이는 사회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에서의 고등교육 기회가 그동안 계속해서 확대되어온 점을 감안할 때 그전의 조사결과와도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어 우리나라는 절대 다수의 학부모들이 자녀를 대학까지 보내고 싶어하는 일관된 욕구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사회 전체의 대학 정원 규모나 대학 정원 결정 기준에 대해서는 일부 교육기회가 제한되어야 한다는 보수적인 의식을 가진 사람이 없지 않으나 자신의 이해와 관련이 되면 교육기회를 더욱 늘려야 한다는 개방적인 의식으로 바뀌어 갈 수 있다.

학생들의 대학진학에서 지금까지 그들의 진로 성향을 보면 법·의학계열 일부 계열만을 선호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와 관련하여 “대학까지 보내신다면 대학의 어느 계열에 진학하기를 원하십니까?”의 질문에 대한 응답은 전체적으로 10개 분야의 대학전공계열에서 사범계열 16.5%, 인문과학계열 14.7%, 의학계열 12.5%, 자연과학계열 12.1%, 공학계열 11.3%, 예능계열 10.7%, 법학계열 8.3%, 사회과학계열 6.6%, 상경계열 3.8%, 체육계열 3.5% 순으로 응답하고 있다<표Ⅳ-13 참조>.

이를 계층별로 보면 상류층은 인문과학계열 21.6%, 공학계열 17.6%, 의학·자연과학계열 15.7%이며, 중류층은 사범계열 17.5%, 인문과학 14.2%, 의학계열 13.1%이고, 하류층은 예능계열 16.3%, 사범계열 14.6%, 인문과학계열 13.5% 순으로 계획하고 있다.

72) 임연기(1998), 전제서, p.47.

<표 IV-13> 계층별 대학진학 전공계열

구분 \ 계층	상	중	하	전체	비고
인문과학	11 (43.8) (21.6)	60 (28.8) (14.2)	14 (27.4) (13.5)	85 (14.7)	$\chi^2 =$ 29.250 df=18 *p<.05
사회과학	1 (11.0) (1.9)	28 (38.4%) (6.6)	9 (50.6) (8.7)	38 (6.6)	
상경계열		15 (34.0) (3.5)	7 (66.0) (6.8)	22 (3.8)	
법학계열	5 (41.5) (9.8)	38 (37.7) (8.9)	5 (20.8) (4.9)	48 (8.3)	
의학계열	8 (42.9) (15.7)	56 (35.8) (13.1)	8 (21.3) (7.8)	72 (12.5)	
자연과학	8 (44.4) (15.7)	55 (36.4) (12.9)	7 (19.2) (6.8)	70 (12.1)	
공학계열	9 (43.0) (17.6)	46 (26.2) (10.7)	13 (30.8) (12.6)	65 (11.3)	
사범계열	6 (26.9) (11.8)	75 (39.9) (17.5)	15 (33.2) (14.6)	95 (16.5)	
예능계열	5 (27.8) (9.8)	30 (25.9) (9.1)	17 (46.3) (16.3)	61 (10.7)	
체육계열	1 (15.6) (1.9)	11 (20.5) (2.5)	8 (63.9) (7.8)	20 (3.5)	
계	51 (8.8)	423 (73.3)	103 (17.9)	577	

* ()의 상은 행, 하는 열의 %임

계층간 대학진학 전공계열의 차이를 인문과학계열에서는 상류층:

43.8%, 중류층: 28.8%, 하류층: 27.4%로 상류층이 많고, 사회과학계열에서는 상류층: 11.0%, 중류층: 38.4%, 하류층: 8.7%로 중류층이 많고, 상경계열에서는 전체의 3.8%에서 하류층(66.0%)이 중류층(34.0%)보다 절반이 많다. 법학계열, 의학계열, 자연과학계열, 공학계열에서는 각기 상류층: 41.5%, 42.9%, 44.4%, 43.0%, 중류층: 37.7%, 37.7%, 35.8% 36.4%, 26.2%, 하류층: 20.8%, 21.3%, 19.2%, 30.8%로 상·중·하류층 순이다. 사범계열에서는 상류층: 26.9%, 중류층: 39.9%, 하류층: 33.2%로 중류층이 많고, 예능계열에서는 상류층: 27.8%, 중류층: 25.9%, 하류층: 46.3%로 하류층이 많다. 체육계열에서는 상류층: 15.6%, 중류층: 20.5%, 하류층: 63.9%로 하류층이 많다. 여기에서 보면 10개 전공계열 중 상류층의 학부모들은 인문과학계열, 법학계열, 의학계열, 자연과학계열, 공학계열을 다른 계층보다 많이 선호하고 있으며, 중류층은 사범계열에 하류층은 사회과학계열, 상경계열, 예능계열, 체육계열에서 다른 계층에서보다 많다. 즉, 상류층은 인문과학계열, 공학계열을, 중류층은 사범계열, 사회과학계열을, 하류층은 상경계열, 체육계열의 대학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대학진학 전공계열과 계층별 사이에는 유의수준 $p < .05$ 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녀의 지식과 능력, 가정형편, 직업획득의 안전 동등을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학부모들은 자녀들을 서울을 중심으로 한 대학에 보내는 경향이 지배적이다. 이와 관련하여 진학하기를 원하는 대학의 소재지 즉 “자녀를 어디에 있는 대학에 보낼 계획이십니까?”고 질문한 결과 그 응답은 <표 IV-11>와 같다.

<표IV-14> 계층별 진학을 계획하고 있는 지역별 고등교육기관

구분	계층	상	중	하	전체	비고
거주지 시·도에 있는 대학		6	170	69	245	$\chi^2 =$ 69.238 df=6 **p<.01
		(9.9) (11.7)	(33.7) (39.7)	(56.4) (66.3)	(42.5)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		30	169	13	212	
		(53.3) (58.8)	(35.7) (39.4)	(11.0) (12.5)	(36.8)	
서울 및 거주지 이외의 대학		9	76	19	104	
		(32.9) (17.6)	(33.1) (17.7)	(34.0) (18.2)	(18.1)	
외국에 있는 대학		6	8	1	15	
		(81.3%) (11.7)	(12.5) (1.8)	6.2%) (0.9)	(2.6)	
계		51	428	104	583	
		(8.7)	(73.4)	(17.9)		

* ()의 상은 행, 하는 열의 %임

전체적으로 보면 거주지 시·도에 있는 대학 42.5%,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 36.8%, 서울 및 거주지 이외의 대학 18.1%, 외국에 있는 대학이 2.6%로 나타났는데, 서울에의 집중도가 다소 완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계층별로 상류층은 서울에 있는 대학 58.8%, 서울 및 거주지 이외의 대학 17.6%, 11.7%는 외국에 있는 대학과 거주지 시·도에 있는 대학을 계획하고 있고, 중류층은 서울 및 거주지 시·도에 있는 대학이 각각 39.4%, 39.7%이며, 서울 및 거주지 이외의 대학은 17.7%, 외국에 있는 대학은 1.8%이다. 하류층은 거주지 시·도에 있는 대학을 66.3%가 계획하고 있고 서울에 있는 대학은 12.5%, 서울 및 거주지 이외의 대학 18.1%, 외국에 있는 대학은 0.9%에 불과하다.

계층간 진학을 계획하고 있는 지역별 고등교육기관의 차이는 거주지

시·도에 있는 대학에 있어 상류층: 9.9%, 중류층: 33.7%, 하류층: 56.4%로 하류층이 다른 계층보다 거주지 시·도에 있는 고등교육기관을 많이 계획하고 있고,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은 상류층: 53.3%, 중류층: 35.7%, 하류층: 11.3%로 상류층이 많고, 서울 및 거주지 이외의 대학은 상류층: 32.9%, 중류층: 33.1%, 하류층: 43%로 계층간에 서로 비슷하나 하류층이 약간 많이 계획하고 있다. 외국에 있는 대학은 전체의 2.6%에서 상류층: 81.3%, 중류층: 12.5%, 하류층: 6.2%로 상류층이 다른 계층에 비해 훨씬 많이 계획하고 있다. 즉, 상류층은 서울 및 외국에 있는 대학, 중류층은 거의 비슷하나 서울 및 거주지 시·도에 있는 대학, 하류층은 거주지 시·도에 있는 대학을 많이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학을 계획하고 있는 지역별 고등교육기관의 선호도는 계층별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p < .01$ 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대학진학 계획에 가정형편, 직업의 선택 등 현실적 여건들이 반영되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우리사회에서 대학교육을 받은 자와 받지 않은 자 간에 입직(入職)과 관련된 지위획득이나 사회적인 위신의 면에서 상당한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대학교육을 받는 목적이 이러한 사회적인 인정을 받는 것과 무관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대학교육의 수단적인 기능이 매우 강조되면서 대학교육에 대한 수요를 높여 왔던 주된 요인임을 부인할 수는 없다. 여기에서 학부모들은 대학졸업에서 무엇을 기대하며 대학을 못나온 사람이 겪는 고초가 무엇인가를 알아보기 위해 “우리사회에서 대학을 나오지 않은 사람이 겪는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라는 질문을 한 결과 <표IV-15>와 같이 응답하였다.

<표Ⅳ-15> 계층별 대학을 못 나온 사람이 겪는 문제

구분 \ 계층	상	중	하	전체	비고
인간적으로 무시당한다	4 (29.2) (7.8)	48 (41.9) (11.2)	8 (28.9) (7.7)	60 (10.3)	χ^2 - 11.297 df=6 N.S.
결혼 상대자를 고르기 어렵다	2 (32.0) (3.9)	7 (13.1) (1.6)	7 (54.9) (6.7)	16 (2.7)	
승진이 잘 안 된다	9 (28.9) (17.6)	82 (31.6) (19.2)	25 (39.5) (24.0)	116 (19.9)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직업을 갖기 어렵다	36 (35.3) (70.6)	291 (34.0) (68.0)	64 (30.7) (61.6)	391 (67.1)	
계	51 (8.7)	428 (73.4)	104 (17.9)	583	

* ()의 상은 행, 하는 열의 %임

<표Ⅳ-15>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직업을 갖기 어렵다’ 67.1%, ‘승진이 잘 안 된다’ 19.9%, ‘인간적으로 무시당한다’ 10.3%, ‘결혼 상대자를 고르기 어렵다’ 2.7%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계층별로는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직업을 갖기 어렵다고 상류층: 70.6%, 중류층: 68.0%, 하류층: 61.6%로 응답하였고, 승진이 잘 안 된다는 측면에서는 상류층: 17.6%, 중류층: 19.2%, 하류층: 24.0%로, 인간적으로 무시당한다는 측면에서는 상류층: 7.8%, 중류층: 11.2%, 하류층: 7.7%이며, 결혼 상대자를 고르기 어렵다는 측면에서는 상류층: 3.9%, 중류층: 11.2%, 하류층: 7.7%가 응답하였다. 모든 계층에서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직업을 갖기 어렵다’는 응답이 67%이상이다.

계층간 대학을 못 나온 사람이 겪는 문제의 차이를 보면 ‘인간적으로 무시당한다’는 인식은 전체의 10.3%에서 상류층: 29.2%, 중류층:

41.9%, 하류층: 28.9%로 중류층이 높고, ‘결혼상대자를 고르기 어렵다’는 인식은 전체적으로 보면 2.7%에 불과하지만 상류층: 32.0%, 중류층: 13.1%, 하류층: 54.9%로 하류층이 높다. ‘승진이 잘 안 된다’는 인식은 상류층: 28.9%, 중류층: 31.6%, 하류층: 39.5%로 하류층이 다른 계층보다 높게 인식하고 있다.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직업을 갖기 어렵다’는 인식에 있어서는 모든 계층의 34% 수준에서 비슷하게 응답하고 있다.

이에 따른 계층별 지각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나 모든 계층에 관계없이 대학을 나오지 않으면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직업을 갖기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자녀를 대학교육까지 시키려고 할 때에는 반드시 취업 승진 등의 수단적 목적이 현실적으로 앞서 있음을 들어내고 있다. 즉 대학졸업 여부에 따라서 직업지위 획득에 큰 차별을 받고 있다는 우리의 사회적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대다수 학부모들이 자녀를 대졸이상까지 교육시키겠다고 하며, 특히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직업을 얻기 위하여 4년제 대학이상을 선호하는 현실에서 왜 그러한지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하여 “4년제 대학을 나와도 전문대나 고졸자 보다 바라는 직업을 갖는데 유리하지 않다면 자녀를 어느 학교까지 보내시겠습니까?”라는 질문을 해 본 결과 응답내용은 <표IV-16>과 같다.

전체적으로 ‘그래도 4년제 대학에 보내겠다’는 51.3%로 다소 줄어든 반면, ‘전문대학’에 보내겠다는 응답은 39.3%로 높아져 학부모들의 대학 진학열이 직업적 지위의 획득이나 입직 효과에 대해 다소 인식의 변화를 엿 볼 수 있다. ‘고등학교만을 졸업시키겠다’는 응답은 9.4%에 불과하다.

<표IV-16> 계층별 직업취득과 상급학교 선택

구분 \ 계층	상	중	하	전체	비고
고등학교만 졸업시키겠다	2 (12.6)	33 (25.3)	20 (62.1)	55	$\chi^2 =$ 38.308 df=4 p<.01
	(3.9)	(7.8)	(19.2)	(9.4)	
전문대학에 보내겠다	10 (17.9)	166 (35.5)	53 (46.6)	229	
	(19.6)	(38.7)	(50.9)	(39.3)	
그래도 4년제 대학에 보내겠다	39 (47.9)	229 (33.5)	31 (18.6)	299	
	(76.5)	(53.5)	(29.8)	(51.3)	
계	51 (8.7)	428 (73.4)	104 (17.9)	583	

* ()의 상은 행, 하는 열의 %임

그래도 4년제 대학에 보내겠다고 응답한 비율을 계층별로 보면, 상류층 76.5%, 중류층 53.5%, 하류층 29.8%로 나타났으며, '전문대학'은 상류층 19.6%, 중류층 38.7%, 하류층 50.9%가 응답하였다. 고등학교만 졸업시키겠다는 응답은 상류층 3.9%, 중류층 7.8%, 하류층 19.2%에 불과하다.

계층간에는 고등학교만을 졸업시키겠다는 응답이 상류층: 12.6%, 중류층: 25.3%, 하류층: 62.1%로 하류층이 다른 계층보다 훨씬 많고, 전문대학에 보내겠다는 응답은 상류층: 17.9%, 중류층: 35.5%, 하류층: 46.6%로 역시 하류층이 높다. 그래도 4년제 대학에 보내겠다는 응답은 상류층 47.9%, 중류층: 33.5%, 하류층: 18.6%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즉, 계층별로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4년제 대학을 나와도 전문대나 고졸자 보다 바라는 직업을 갖는데 유리하지 않아도 학부모 전체의 51.3%가 4년제 대학을 보내겠다고 응답하였으며, 직업과 상급학교 선택의 계층별 사이에는 유의수준 $p < .01$ 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러한 결과는 4년제 대학이상의 졸업장이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직업을 갖는데 유리하다는 점 이외에도 많은 유인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대학 졸업장이 주는 내재적 가치(성숙한 인간형성과 학문탐구)나 남들로부터의 사회적 인정도가 대학진학을 희망하게 하는 중요한 동기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또한 계층적 배경에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4년제 대학이상을 선호하고 있는 것은 일단 강렬한 진학열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이는 교육열이라기보다는 취업과 연결된 진학열로, 특히 우리나라 학부모들의 자녀들에 대한 대학 진학열은 교육열과 현실적으로 괴리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며, 대학교육에 있어서 4년제 대학과 2년제 대학의 교육목적 및 내용에 대한 이해의 미흡, 졸업장이나 학위가 현실적으로 직업적 진로와 어떻게 관련되는지, 대학교육의 효과에 대한 인식이 미흡한채 무조건 대학 졸업장 열병(diploma disease)⁷³⁾에 전염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볼 수 있다. 직업적 지위 획득이나 소득 증대에 실질적으로 관계가 있는 학력(學力)이나 기능의 연마, 또는 자격증의 획득보다 단순히 대학졸업장이나 학위 정도에서 그 취득을 중요시하는 이른바 Collins⁷⁴⁾가 말하는 학력주의(學歷主義) 사회의 한 단면을 잘 보여주는 실증이라 할 수 있다.

2. 學父母의 子女教育 支援 行爲


우리나라 교육의 발전은 학부모들의 희생과 열정 위에서 가능하였다

73) Dore, R./이건만·김성학 역(1992), 졸업장 열병(diploma disease), 양서원, p.34.

74) Collins, R./정우현 역(1989), 學歷主義 社會, 배영사, pp. 56-61.

고 해도 지나친 딸은 아닐 것이다. 특히 학부모들이 유별난 교육열은
 과외 등 자녀교육을 위해 사교육비까지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는 실
 정이다. 가정형편이 어려워도 과외비를 감수하고 있고, 심지어 거주지
 까지 옮기면서 자녀교육에 뒷바라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자녀교육에 투자하는 비용은 매우 높은 편이다. 1998년
 우리나라의 사교육비 지출총액 규모는 약 29조 3,784억원으로 GNP의
 약 6.5%이다⁷⁵⁾. 이와 같은 사교육비에 공교육비를 포함하면 엄청난 교
 육비가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다. 임연기는 한국인의 교육의식 조사 결
 과 자녀를 학교에 보내는데 필요한 교육비에 대해서 64.3%가 많은 부
 담을 느끼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⁷⁶⁾. “원하는 교육수준의 자녀교육을
 위하여 교육비를 어느 정도까지 부담하시겠습니까?”의 질문에 대한 응
 답은 <표IV-17>과 같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표IV-17> 계층별 자녀교육비 부담의사

구분	계층	상	중	하	전체	비고
빛을 내서라도 부담하겠다		8 (38.5)	54 (30.9)	13 (30.6)	75	$\chi^2 =$ 0.398
		(15.7)	(12.6)	(12.5)	(12.9)	
가정경제가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부담하겠다		43 (32.5)	374 (33.7)	91 (33.8)	508	df=2 N.S.
		(84.3)	(87.4)	(87.5)	(87.1)	
계		51 (8.7)	428 (73.4)	104 (17.9)	583	

* ()의 상은 행, 하는 열의 %임

75) 김홍주·한유경·김현철(1999), “한국 학생의 연간 사교육비 지출 규모와 변동
 추세,” 교육학연구, 제37권 제4호, p.325.

76) 임연기(1998), 전개서, pp.48-50.

전체적으로 ‘가정경제가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부담하겠다’ 87.1%, ‘빚을 내서라도 부담하겠다’ 12.9%로 응답하였다.

계층별로는 모든 계층에서 ‘빚을 내서라도 부담하겠다’가 15.7%, 12.6%, 12.5%로 비슷한 응답을 하였으며, 또한 ‘가정 경제가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부담하겠다’에서도 모든 계층에서 84.3%, 87.4% 87.5%로 비슷하게 응답하였다.

계층간 자녀교육비 부담의사의 차이도 모든 계층의 30-40%에서 엇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계층별 배경을 무릅쓰고 학부모들의 100%가 자녀교육비 부담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자녀교육비 부담의사와 계층별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교육을 위하여 모든 학부모가 자녀교육비를 부담하겠다고 하고 있고 빚을 내서라도 부담하겠다(12.9%)고 하는 것은 학부모들이 자녀교육을 위해 모든 희생과 열정을 다 바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직업적 지위 획득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전통적인 숭분주의와 강고한 가족주의 그리고 다른 나라와 비교할 수 없는 자녀애와 부모의 대리만족 등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하여 빚어지는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모든 학부모가 교육비를 부담하겠다고 하더라도 자녀의 학업성적수준이나 가정형편이 어렵다면, 이는 현실적으로 무리다. 이러한 경우, “자녀의 성적과 가정형편을 고려할 때, 자녀의 대학 진학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라는 질문한 결과 응답내용은 <표IV-18>과 같다.

전체적으로 대학 갈 성적만 된다면 가정형편이 어려워도 꼭 대학에 보내겠다는 응답이 61.2%나 되었고, 대학간 성적이 되어도 가정형편이 어려우면 보내지 않겠다는 응답은 3.8%에 불과하였다. 한편 대학 갈 성

적이 되고 가정형편이 어렵지 않아도 자녀가 원하지 않으면 대학에 보내지 않겠다는 응답이 30.7%이고, 나머지 4.3%는 대학갈 성적이 안되고 가정형편이 어려워도 꼭 대학에 보내겠다고 응답하였다.

<표IV-18> 계층별 자녀의 성적과 가정형편의 고려 정도

구분	계층	상	중	하	전체	비고
대학갈 성적이 안되고 가정형편이 어려워도 꼭 대학에 보내겠다		2	19	4	25	$\chi^2=$ 10.953 df=6 N.S.
		(32.2)	(36.4)	(31.4)		
대학 갈 성적수준에 따르면 가정형편이 어려워도 꼭 대학에 보내겠다		33	270	54	375	
		(36.0)	(35.1)	(28.9)	(61.2)	
대학 갈 성적이 되어도 가정형편이 어려우면 보내지 않겠다		1	12	9	22	
		(14.2)	(21.1)	(64.7)		
대학 갈 성적이 되고, 가정형편이 어렵지 않아도 자녀가 원하지 않으면 대학에 보내지 않겠다		15	127	37	179	
		(31.1)	(31.3)	(37.6)	(30.7)	
계		51	428	104	583	
		(8.7)	(73.4)	(17.9)		

* ()의 상은 행, 하는 열의 %임

'가정형편이 어려워도 대학갈 성적이 되면 대학에 보내겠다'는 응답은 상류층 64.7%, 중류층 63.1%, 하류층 51.9%로 나타났다. 계층배정에 별로 구애받지 않고 대부분 자녀의 성적만 허락되면 대학교육을 중요시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자녀가 원하지 않으면 대학에 보내지 않겠다'에서는 상류층 29.4%, 중류층 29.6%, 하류층 35.5%이며, '대학갈 성적이 되어도 가정 형편이 어려우면 보내지 않겠다'는 응답이 상류층 1.9%, 중류층 2.8%, 하류층 8.6%로 하,중,상 순으로 바뀌고 있다. 이것은 자녀의 의사를 존중하기보다는 가정형편을 고려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또한, '대학갈 성적이 안되고 가정 형편이 어려워도 꼭 대학에 보내

겠다'는 응답은 상류층 3.9%, 중류층 4.4%, 하류층 3.8%로 그 차이는 미미하나 대학진학에 있어 본인의 능력이나 교육비 부담을 현실적으로 고려하고 있음을 엿보게 한다.

계층간 자녀의 성적과 가정형편의 고려 정도의 차이는 '대학갈 성적이 되어도 가정형편이 어려우면 보내지 않겠다'에서는 전체의 3.8%에 불과하나 하류층 64.7%가 응답하여 다른 계층보다 훨씬 높고 나머지 3항목에서는 30-40%선에서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 차이를 나타내기는 어렵지만, 96.2%의 학부모들이 가정형편이 어려워도 대학에 보내겠다고 하고 있다. 특히 대학갈 성적이 안되어도 꼭 대학에 보내겠다(4.3%)고 하고 있다. 자녀의 성적과 가정형편의 고려하는 정도와의 사이에는 계층별로 볼 때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 학부모들의 경우 자녀가 대학 갈 성적만 된다면 가정형편은 대학에 보내고 안 보내는데 별로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파출부 등 막노동을 하면서까지 자녀의 과외비, 학비를 벌어들이는 어머니들의 열정을 보면 이러한 응답경향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96.2%의 학부모들이 가정형편이 어려워도 대학에 보내겠다 특히 대학갈 성적이 안되어도 꼭 대학에 보내겠다(4.3%)는 강한 의욕은 부모들이 자식을 향한 자녀애와 대리만족이 한국인의 교육열의 특이한 현상임을 보여주고 있다.

1984년(한국개발조사연구소)에서 국민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00가 장차 좋은 중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좋은 중학교들이 있는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 한다면 00님께서 이사갈 용의가 있는지"를 조사한 적이 있다. 이 당시는 용의가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44.2%로서 반수에 약간 못 미쳤다. 또한 10년 후인 1994년 한국인의 교육의식 조사연구에서는

이사할 용의가 있는 학부모가 50%정도로써 약간 증가 추세를 보였다⁷⁷⁾. 그러나 6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 그 동안 생활권의 확대, 농촌의 발전, 고교평준화 정책 등으로 중등교육의 격차가 해소된 지금도 전과 같이 절반의 학부모들이 자녀교육을 위하여 이사할 용의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원하는 수준의 자녀 교육을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사할 생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을 했다. 그 결과 응답 경향을 보면 <표Ⅳ-19>와 같다.

<표Ⅳ-19> 계층별 주거 이동 의사

구분	계층	상	중	하	전체	비고
무리를 해서라도 이사하겠다			5 (29.3)	3 (70.7)	8	$\chi^2 =$ 6.965 df=4 N.S.
			(1.2)	(2.9)	(1.4)	
여건만 허락하면 이사하겠다	25 (33.7)	232 (37.3)	44 (29.0)	301 (51.6)		
	(49.0)	(54.2)	(42.0)			
굳이 이사할 필요가 없다	26 (33.9)	191 (29.7)	57 (27.4)	274 (47.0)		
	(51.0)	(44.6)	(54.8)			
계	51 (8.7)	428 (73.4)	104 (17.9)	583		

* ()의 상은 행, 하는 열의 %임

전체적으로 보면 ‘여건만 허락하면 이사하겠다’ 51.6%, ‘무리를 해서라도 이사하겠다’ 1.4%로 53.0%가 이사 할 용의가 있는 것으로 응답하고있고, ‘굳이 이사할 필요가 없다’는 47.0%로 응답하였다. ‘무리를 해

77) 김영화·이인효·임진영(1994), 한국인의 교육의식 조사연구, 한국교육개발원, pp.110-111.

서라도 이사하겠다’는 응답은 계층에 관계없이 그 비율이 매우 낮은 편이다. ‘여간만 허락하면 이사하겠다’는 상류층 49.0%, 중류층 54.2%, 하류층 42.3%로 중류층이 약간 높게 응답하였다. 반면 ‘굳이 이사할 필요가 없다’에서는 상류층 51.0%, 중류층 44.6%, 하류층 54.8%로 하류층이 높게 응답하였다.

대체로 절반(53%)이상의 학부모들이 계층에 관계없이 원하는 수준의 자녀교육을 위하여 주거지를 옮길 의사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나 주거이동의사와 계층별 사이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6년 전에 비해 약간의 증가에 그치고 있어 제주도의 지역성과 중등교육의 격차 해소가 자녀교육과 관련된 도시집중요인이 다소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나, 아직도 절반이 넘는 학부모들이 자녀교육을 위해 이사할 용의가 있다는 것은 강한 교육열의 표출이라고 할 수 있다.



자녀의 대학진학과 관련된 한국교육의 특이한 문제는 학원과의등 사교육 면에까지 자녀들의 교육을 지원하여 그 경쟁력이 확대되고 있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1998년에 서울 및 경기지역의 일반계 고등학교 7개 교에 재학 중인 2학년 학생 2,150명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과외가 학업성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를 하였던 바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11.4%),’ ‘어느 정도는 도움을 줄 것이다(74.8%),’ ‘별로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11.6%),’ ‘전혀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2.2%)’로 과외는 학업성적과 86.2%가 관계가 있다고 응답하였다⁷⁸⁾. 또한 제주도 초등학교 학부모 930명을 대상으로 학원 과외학습에 대한 학부모의 인

78) 백일우(1999), “과외행위에 대한 교육경제학적 이해,” 교육학연구, 제37권 제4호, p.300.

식 조사 연구 결과에서 보면, 자녀의 학원교육과 관련하여 학부모들은 교육을 자아실현과 전인적 성장보다는 사회적 지위 향상이나 경제적 부의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도구적 교육관을 지니고 있고, 자녀들은 대학이상의 고학력을 지닌 전문적인 사람이 되어야 미래사회에 유능하게 적응할 수 있다고 보아, 90%이상의 학부모들이 학원과외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또한 제주도 초등학생 전체의 83.3%가 주산 속셈 등등 학원과외 학습을 받고 있으며, 초등학교 1학년 이전에 81.7%가 예능계열 중심의 학원과외학습을 시작하여 현재 1인당 평균 1.6과목을 수강하고 있다. 그리고 학부모들은 학원과외학습비가 가계에 부담이 된다고 하면서도 자녀교육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가계에서 지출해야 될 비용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이것으로 보아 초등학생의 학원과외학습은 일반화, 보편화된 교육으로 볼 수 있다⁷⁹⁾. 이러한 인식 속에서 “자녀에게 과외가 필요하다면 과외비를 어느 정도까지 부담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하여 응답한 내용은 <표Ⅳ-20>과 같다.

전체적으로 82.3%가 가정경제가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부담하겠다고 응답하였으며, 1.2%는 빚을 내서라도 부담하겠다고 하고 있고, 8.4%는 빚이 된다면 부담 않겠다고 응답했다. 어찌하든 과외는 시키지 않겠다는 응답은 8.1%에 불과하였다. 즉, 91.9%의 학부모가 과외를 시키겠다고 응낙하였다.

계층별로 보면 ‘가정경제가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부담하겠다’에서 상류층 94.1%, 중류층 84.3%, 하류층 68.3%로 응답하였으며, ‘빚을 내서라도 부담하겠다’에서는 상류층 0.9%, 중류층 1.2%, 하류층 0.9%로 응답하였다. ‘빚이 된다면 부담 않겠다’는 상류층 4.0%, 중류층 7.7%, 하

79) 김경식(1995), 국민학생의 학원과외학습에 대한 학부모 인식 조사 연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89-91.

류층 13.5%이며 ‘이제하는 과외를 시키지 않겠다’는 학부모들은 상류층은 없고, 중류층 6.8%, 하류층 17.3%에 불과하다. 즉, 91.9%의 학부모들이 과외비를 부담하겠다고 하고 있고, 계층별은 상류층 100%, 중류층 93.2%, 하류층 82.7%가 과외비 부담의사를 표출하고 있으나, 과외비 부담의사의 계층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91.9%의 학부모들이 과외를 시키겠다는 의사가 있음은 과외가 재능, 취미의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학업성적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고 진학에 지대한 효과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IV-20> 계층별 과외비 부담의사

구분	계층	상	중	하	전체	비고
가정경제가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부담하겠다		48 (38.1) (94.1)	361 (34.2) (84.3)	71 (27.7) (68.3)	480 (82.3)	$\chi^2 =$ 24.515 df=6 N.S.
빚을 내서라도 부담하겠다		1 (30.0) (0.9)	5 (40.0) (1.2)	1 (30.0) (0.9)	7 (1.2)	
빚이 된다면 부담 않겠다		4 (15.9) (4.0)	33 (30.6) (7.7)	14 (53.5) (13.5)	49 (8.4)	
이제하는 과외는 시키지 않겠다			29 (28.2) (6.8)	18 (71.8) (17.3)	47 (8.1)	
계		51 (8.7)	428 (73.4)	104 (17.9)	583	

* ()의 상은 행, 하는 열의 %임

결론적으로 보면 제주도의 모든 학부모들은 자녀교육을 위한 교육비에 부담을 느끼면서도, 가정형편이 어려워도 대학에 보내겠다는 96.2% 학부모들 가운데서 4.3%는 대학간 성적이 안되어도 꼭 대학에 보내겠

다고 하고있다. 또한 절반이 넘는 53%의 학부모가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는 거주지까지 옮길 용의가 있다는 반응은 매우 강한 교육열의 표출이라고 아니 할 수 없다. 그리고 계층배경에 관계없이 대다수(91.9%) 학부모들이 어떻게 해서든 대학만 갈 수 있다면 과외라도 시키겠다는 것은 역시 자녀교육에 대한 강한 교육열을 표출해 주고 있는 좋은 실증이라 할 수 있다.



V. 要約 및 結論

1. 要約

세계적으로 높은 한국인의 교육열은 우리나라 교육을 특징짓는 핵심요인 중의 하나다. 우리나라의 부모는 대부분이 계층적 배경을 넘어서 자녀를 대학까지 그것도 몇몇의 한정된 계열에 진학시키려고 하고 있어 모든 계층에서 과열된 입시경쟁을 야기 시키고 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학부모의 교육열의 정도가 사회계층간에는 다르다는 일반적인 논의와는 달리 제주도 학부모의 교육열은 모든 계층에서 높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이를 확인해 보고 교육열의 실상의 일부를 밝히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학부모의 자녀 대학 진학열과 자녀교육 지원행위’의 두 차원으로 나누어 이에 대한 실상을 밝히고자 하였다.

계층과 관련하여 한국인의 교육열이 어떤 성격을 갖는지를 밝히고자 교육열의 성격, 또 이와 관련된 사회계층과 교육적 행위의 특징을 중심으로 하여 양자간의 관계를 밝힌 여러 가지 문헌 및 연구자료들을 통해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았다. 교육열은 ‘교육, 취학의 열망, 교육기대수준 그리고 교육적 행위양식과 관련하여 개인적·사회적 동기의 정도, 교육을 위해 투입하는 행위, 자녀교육비 부담수준 및 부담의지 등으로 정의하고 있고, 일반화되어 있지는 않으나 연구자 나름대로 서로 다른 교육열의 개념을 정의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교육열을 “자녀를 교육시키고자 하는 개개 학부모의 열의” 즉 「개개 학부모의 자녀 대학 진학열과 자녀교육 지원 행위」로 정의하였다. 교육열은 개인, 사회, 국가 발전의 동인이 되지만, ‘굴절된

교육열'은 수많은 사회병리 현상을 잉태하고 있고, 어머니의 자식을 향한 대리만족으로 교육열이 재생산되며, 생존과 성공을 위한 교육전쟁을 야기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역사적인 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 교육열은 멀리 유교사상 및 과거제도에서 유래된 승문주의, 가족주의, 입신양면적교육관의 전통과 깊은 관련이 있다. 가까이는 급격한 정치적, 경제적 변화와 인재에 대한 수요 급증, 전통적 신분구조의 해체와 학교교육을 통한 활발한 사회 이동, 후기 개발, 대기업 중심의 산업화가 교육열을 부추겼고, 이러한 교육열은 '도구적 교육열'로써 잠재기, 표출기, 팽창기를 거치면서 전개되어 오늘날 중류층 이상에서 강한 교육열로 표출되고 있는 현실이다.

사회계층의 분류는 그 결정요인을 본 연구에서는 Warner 등의 결정요인에 따라 직업, 주거지역, 가옥종류, 수입액, 수입원, 교육수준의 6개 요인으로 하였다. 이 6개 요인을 각각 7단계로 나누고, 이들에게 홍두승의 지위특성지수에 의거 1점에서 7점까지 점수를 부여하여 점수의 합계가 6-10점은 상류층, 11-26점은 중류층, 27-42점은 하류층으로 분류하였다. 사회계층변에 따라 문화적 행위양식은 일반적으로 다르다고 하는 것이 공통된 지적이다. 상류층은 가문과 전통을 존중하며 현재지위 또는 품위를 유지하기 위한 교양교육에 많은 관심을 갖는 반면, 중류층은 미래지향적인 가치관이며, 사회적 상승이동에 관심이 높다. 따라서 그 수단으로써 학교교육을 중시하여 자녀의 교육에 대해 대단한 열의를 나타내고 있다. 하류층의 자녀교육에 대한 관심은 적고 경제적 여건이 미치지 않아 자녀의 고등교육을 힘겨워 하고 있다.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질문지법에 의해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은 제주도 시지역 6개교, 읍·면지역 2개교, 농·어촌지역 2개교 등 모두 10개교의 초등학교 5·6학년 학부모 583명을 그 대상으로 조

사하였다. 분석은 사회계층별로 학부모의 자녀 대학 진학열과 자녀교육 지원행위에 대하여 SPSS교본에 따라 빈도와 백분율, χ^2 -검정 등의 방법을 사용하였고, 유의수준은 $p<.01$ 과 $p<.05$ 로 하였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자녀의 대학 진학열은 '계획하고 있는 교육수준 및 대학진학 전공계열, 계획하고 있는 대학의 지역, 대학을 나오지 못한 사람이 겪는 문제, 직업취득과 상급학교 선택 등을 묻는 질문으로 하여 조사 분석하였다.

“자녀를 실제로 어느 수준까지 교육시킬 계획이 십니까?”의 질문에 대한 결과는 모든 계층의 학부모 97.8%가 대학을 계획하고 있다. 이 비율은 전국의 97.5%보다 높다. 상류층은 석사학위 이상(64.7%), 4년제 대학(35.3%)을, 중류층은 4년제 대학(49.5%), 석사학위이상(40.7%), 전문대학(8.3%) 순으로, 하류층은 4년제 대학(57.7%), 전문대학(19.2%), 석사학위이상(17.3%) 순으로 계획하고 있다. 고등학교만을 계획하고 있는 학부모는 중류층 1.5%, 하류층 5.7%에 불과하다. 즉, 대부분 상·중류층은 4년제 대학 및 석사학위이상, 하류층은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을 계획하고 있었다. 그리고 대학의 10개 분야 전공계열에서 전체적으로 학부모들이 많이 계획하고 있는 전공계열은 사범계열의 대학이다. 그러나 상류층은 인문과학계열, 공학계열, 중류층은 사범계열, 사회과학계열, 하류층은 상경계열, 체육계열의 대학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많은 학부모들이 계획하고 있는 대학의 지역을 상류층은 서울 소재의 대학, 중류층은 서울 및 제주도내 대학, 하류층은 제주도내의 대학으로 진학을 계획하고 있다.

대학을 못나온 사람이 겪는 문제는 계층별 빈도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모든 계층에서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직업을 갖기 어렵다'고 응답하고 있다. 다음으로 '승진이 잘 안 된다→인간적으로 무시당한다→결혼 상대자를 고르기 어렵다' 순으로 응답하고 있다. 4년제 대학을 나와도 전문대나 고졸자 보다 바라는 직업을 갖는데 유리하지 않다는 현실에서도 상류층(76.5%)과 중류층(53.3%)은 4년제 대학을 선호하고 있으며, 하류층은 전문대학(50.9%)을 선택하고 있다. 고등학교만을 졸업시키겠다고 한 응답은 극소수에 불과했다.

학부모의 자녀교육 지원행위에서는 '자녀교육비 부담의사, 자녀의 성적과 가정형편의 고려 정도, 주거 이동의사, 과외비 부담의사'로 하여 분석하였다.

학부모들은 빚을 내서라도 모든 계층에서 자녀교육비를 100% 부담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많은 학부모들이 현실적으로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다. 자녀의 성적과 가정형편을 고려할 때, 모든 계층에서 대학갈 성적수준에 닿으면 가정형편이 어려워도 꼭 대학에 보내겠다고(96.2%이상)고 응답하고 있다. 대학갈 성적이 안되고 가정형편이 어려워도 꼭 대학에 보내겠다고는 학부모는 중·하류층에서 소수에 불과 했다. 자녀교육을 위하여 거주지를 옮길 의사가 있는 학부모는 모든 계층에서 53%를 나타내고 있다. 그 중에서도 중류층이 55.4%로 제일 높다. 계층에 관계없이 부모들의 91.9%가 과외비 부담 의사를 밝히고 있다.

제주도의 모든 학부모들은 교육비에 부담을 느끼면서도, 학부모의 96.2%가 가정형편이 어려워도 대학에 보내겠다고 하고 있으며, 절반이 넘는 53%의 학부모가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는 거주지까지 옮길 용의가 있고, 학부모들의 91.9%가 과외비 부담 의사가 있어 매우 강한 교육열

을 표출하고 있다.

2. 結論

제주도 학부모의 교육열을 자녀 대학 진학열과 자녀교육 지원 행위의 두 가지 측면에서 계층별로 나누어 비교해 본 결과 학부모들은 자신의 계층적 배경에 관계없이 모두 자녀에게 열망하는 교육수준이 매우 높지만, 열망의 강도와 절실함에 있어서는 자신이 처한 배경적 여건에 따라 조금씩 차이를 보였다. 즉 학부모들이 처한 여건이 다름에 따라 자녀에게 제공할 수 있는 교육환경이 차이가 나며, 따라서 이들이 자녀에게 제공할 수 있는 교육수준이나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 기울이는 구체적인 노력과 이를 지원하는 정도 또한 계층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나타났다.



첫째, 현재 고교재학 이하인 자녀를 둔 초등학교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계획하고 있는 교육수준을 질문한 결과, 계획하고 있는 교육수준은 석사학위이상 38.6%, 4년제 대졸 49.7%, 2년제 대졸 9.4%로 97.8% 학부모들이 대학이상을 계획하고 있다. 이 비율은 전국의 97.5%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상류층에서는 100%, 중류층 98.5%, 하류층 94.3%로 대학 진학을 계획하고 있어 고등학교만을 계획하고 있는 학부모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전반적으로 대부분 상·중류층은 4년제 대학 및 석사학위 이상, 하류층은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사회 전체의 학력과잉 현상과 관련해 볼 때 대학입학 정원규모의 축소나 결정기준에 대한 강화가 요청되고 있으나, 교육기회가 제한되어야 한다는 보수적인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행동이나 태

도와 관련해 대학 교육기회를 수혜하는 데는 모두가 경쟁적인 의식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대학진학 전공계열에서 상류층은 인문과학계열, 공학계열, 중류층은 사범계열, 사회과학계열, 하류층은 상경계열, 체육계열을 선호하고 있다. 또한 학부모들의 대학진학을 계획하고 있는 지역은 상층은 서울에 있는 대학, 중류층은 서울 및 제주도에 있는 대학, 하류층은 제주도에 있는 대학을 우선 계획하고 있고, 외국에 있는 대학도 상류층은 11.7%가 계획하고 있어, 이 지역간 대학차에 대한 일반적인 사회적 평가가 학부모들의 대학 선호도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녀의 지식과 능력, 가정형편, 장래 자녀의 직업획득을 고려하여 대학 진학을 계획하고 있다기 보다는 우리나라 학부모의 교육열은 학구열이며 그것은 모두 대학 진학열로 상승 확대되고 있다.



셋째, 대학을 못나온 사람이 겪는 문제는 모든 계층에서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직업을 갖기 어렵다'는 데 제일 많은 반응을 하고 있다. 다음으로 '승진이 잘 안 된다 >인간적으로 무시당한다 >결혼 상대자를 고르기 어렵다' 순이 중요한 이유로 인식하고 있다. 또한 직업을 갖는데 유리하다면, 상류층 76.5%, 중류층 53.5%, 하류층 29.8%가 그래도 4년제 대학을 선택하고 있으며, 하류층은 전문대학을 50.9% 선택하고 있다. 즉, 절반이상(51.3%)이 4년제 대학에 보내겠다고 하고 있다. 이는 4년제 대학이상의 졸업장이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직업을 갖는데 유리하다는 점 이외에도 많은 유인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즉, 상숙한 인간형성과 학문탐구 등 대학졸업장이 주는 내재적 가치 이외도 남들로부터의 인정이 대학진학을 희망하게 하는 중요한 동기로 자리잡

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하겠다.

넷째, 제주도의 모든 학부모들은 자녀교육을 위한 교육비의 부담을 느끼면서도 100%의 학부모가 자녀교육비를 부담하겠다고 하고 있고, 자녀의 학업성적이 허락한다면 96.2%의 학부모가 가정형편이 어려워도 대학에 보내겠다고 응답하고 있다.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는 절반이 넘는 53%의 학부모가 거주지까지 옮길 의사를 갖고 있고, 부담이 되더라도 91.9%의 학부모가 과외비 부담 의사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하류층에서조차 82.7%가 어떻게 해서든 대학만 갈 수 있다면 과외라도 시키겠다고 하고 있다. 이처럼 절반이 넘는 학부모가 거주지를 옮기면 서까지, 그리고 91.9%의 학부모가 과외를 시키겠다는 면에서 대학교육을 목표로 한 자녀교육에 대해 매우 강한 교육열을 표출하고 있다.

예컨대 제주 학부모들의 대학 진학열은 모든 계층에서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자녀교육을 지원하는 면에서도 모든 계층에서 자녀교육을 적극 지원하고 있어 특히 상·중류층에서 강한 교육열을 표출하고 있다.

參 考 文 獻

<단행본>

고영복(1976), 현대사회학, 법문사.

김병성(1994), 교육과 사회, 학지사.

_____ (1988), 학교교육과 사회적 성취, 한국교육개발원연구보고서,
82-7.

_____ (1988), 교육사회학: 학교교육과 사회적 성취, 양서원.

김선호(1961), 사회와 교육, 선명문화사.

김신일(1986), 교육사회학, 교육과학사.

김영모(1969), 서울시의 사회계층과 계급구조에 관한연구, 울유문화사.

_____ (1981), 한국사회론, 한국사회과학연구소 편, 민음사.

김영자(1986), 사회교육, 창학사.

김영화 · 이인효 · 박현정(1993), 한국인의 교육열연구, 한국교육개발원.

김영화 · 이인효 · 임진영(1994), 한국인의 교육의식 조사연구, 한국교육
개발원,

김용숙(1990), 점수병 학교 · 학력병 학교 이대로 좋은가?, 성원사.

김채윤(1995), 사회계층이란 무엇인가, 삼영사.

김채윤 · 장화진(1982), 사회계층론, 삼영사,

박현정(1992), 한국교육의 종합이해와 미래구상Ⅲ: 학교교육과 선발제
도, 한국교육개발원.

배종근 · 이미나(1988), 한국교육의 실체: 국민은 교육을 어떻게 생각하
나?, 교육과학사.

이재섭 · 박성진 · 송준기(1993), “포항지역 학부모의 교육의식과 태도
에 관한 연구,” 포항연구, 제12호.

- 이종각(1998), *교육사회학 총론*, 동문사.
- 임연기(1997), *교육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정동익(1985), *도시 빈민 연구*, 아침.
- 정범모 외 4인(1993), *교육의 본연을 찾아서*, 나남출판사.
- 최영표 · 이해영 · 한만길(1989), *고학력화 현상의 진단과 대책: 재수생과 대졸 졸업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교육개발원.
- 조은 · 조옥라(1991), *도시 빈민의 삶과 공간*, 서울대학교출판부.
- 주락원(1984), *사회학 개론*, 예문관.
- 진원중(1984), *교육사회학 원론*, 범문사.
- 차경수, 최충욱, 이미나(1997), *교육 사회학의 이해*, 양서원.
- 한준상(1990), *한국사회와 갈등: 한국교육계 갈등구조에 관한 이론화*, 한국교육사회학연구회(편), 양서원.
- 홍두승(1982), *경제발전과 사회계층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학연구협의회.
- Collins, R./정우현 역(1989), *學歷주의 사회*, 배영사.
- Dore, R./이건만 · 김성학 역(1992), *졸업장 열병*, 양서원.
- Warner, W. L, et al.(1949), *Social Class in America: A Model for procedure for measure of social status*, Chicago Science Research Associates.을 인용한 김병성(1988), *교육사회학*, 양서원

<논문>

- 강양원(1994), “한국인의 교육열: 교육기관 후견형 지위 상승모 델의 형성과 전개(1946-1985),” *연세교육연구* 제7권 제1호, 연세교육문제연구소, pp.1-19.

- 강창동(1996), “한국교육열의 사회학 특성에 관한 연구,” 교육문제연구, 제8집, 고려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pp.189-212.
- 곽병선(1993), “한국인의 교육열: 교육학적 고찰,” 교육진흥, 제5권 제4호, 중앙교육연구소, pp.102-109.
- 김경식(1995), 국민학생의 학원과의학습에 대한 학부모 인식 조사연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영화(1992), “학부모의 교육열: 사회계층간 비교를 중심으로,” 교육학연구, 제30권 제4호, pp.173-197.
- 김영화·유한구(1994), “대학진학 수요 결정 요인의 시계열 분석 (1962-1992),” 교육학연구, 제32권, 제1호, pp.70-103.
- 김홍주·한유경·김현철(1999), “한국 학생의 연간 사교육비 지출 규모와 변동 추세,” 교육학연구, 제37권 제4호, pp.307-328.
- 김희복(1992), 학부모 문화 연구: 부산 지역 중산층의 교육열,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박남기(1994), “한국인의 교육열 이해를 위한 대안적 관점,” 교육학연구, 제32권, 제5호. pp.185-206.
- 박혜인(1994), 한국사회의 교육열에 대한 역사적 고찰: 과거 시험이 가족·사회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12권, 제1호, pp.83-92.
- 백일우(1999), “과외행위에 대한 교육경제학적 이해,” 교육학연구, 제37권 제4호, pp.291-305.
- 오옥환(1999), “한국사회의 교육열에 대한 고유 이론모형의 탐색,” 교육학연구, 제37권 제4호, pp.1-28.
- 이기연(1992), 농촌 고교교육의 사회적 기능, 서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두휴(1996), “광주의 교육열과 교육문화,” 한국교육연구, 제3권 제2호, 한국교육연구소, pp.21-57.
- 이인효·박현정(1993), “한국인의 교육열: 교육열의 구조에 대한 문화기술,” 교육진흥, 제5권, 제4호, pp.64-79.
- 이혜영(1992), 대학입학 정원 결정의 사회적 동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효수(1993), “한국인의 교육열: 경제학적 고찰,” 교육진흥, 제5권, 제4호, 중앙교육연구소, pp.92-101.
- 정순우(1999), “한국사회의 교육열에 관한 역사·문화적 접근,” 교육사회학연구, 제9권, 제1호. pp.1-16.
- 추병식(1999), “집단순응과 대리만족의 교육열,” 교육사회학연구, 제9권, 제1호. pp.17-30.
- 한우희(1991), “보통학교에 대한 저항과 교육열,” 교육이론 제6권, 제1호, pp.60-92.
- 한정신(1998), “한국 여성의 교육열 탐구,” 아세아여성연구 제37호, 숙명여자대학교 아세아여성문제연구소, pp.67-99.
- 홍두승(1989), “계층구조와 계층의식: 사회조사 자료를 통하여 본 현실과 전망,” 사회과학과 정책연구, 제11권, 제1호,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소, pp.1-69.

<Abstract>

**A Study of Parents' Educational Fever
in Relation to Their Social Stratification ***
-With Special Reference to Parents in Cheju Province-

Hwang, Haeng-Moon

Educational Administr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Ch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Lee, Soon-Hyoung

The education fever of Korean parents that is highly explosive than that of any other countries in the world constitutes one of the distinctive characteristics of Korean education. Most Korean parents, regardless of their social status, want their children to enter some prestigious universities and furthermore they give special affection for only socially promising academic disciplines of those institutions. This phenomenon naturally gives rise to unprecedented degree of competitiveness for those universities' entrance examination.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April, 2000.

Against this backdrop, my study tries to examine the subject, Chejuian parents support and fever toward education, by the survey method so that this research is to prove parents' enthusiasm, whatever their social background is, in educating children remain equally strong. The interviewees includes the parents who have elementary school children in Cheju province. The question agenda in this survey is largely composed of two major issue areas such as parents' educational fever and their supporting behavior that is again more specifically divided into 9 and 6 sub-questions of each issue area, respectively. The survey presents the following outcomes.

97.8% of respondents want their children to have university education and that ratio slightly encompass 97.5% average nationwide. of this 97.8%. 100% upper class, 98.5% middle class, 94.3% lower class want to go to the university. Almost of parents' want to take a college of Teacher notwithstanding, specifically upper class prefers college of Humanities and Engineering and middle class shows particular concern for college of Teacher and Social Science whereas lower class have much interests in college of Economics-Business Management and Athletics, Meanwhile, the priority about institution's location is given to Seoul for upper class, Seoul or Cheju for middle class and Cheju for lower class. Most parents, the research further informs, have perceived that graduate from 4-year university can

have a much favorable opportunity to find a better job securing more social esteem in Korea. Surprisingly, 100% parents have a perception of financial difficulty in helping their children's education but 96.2% among them still retain a considerable degree of eagerness to get their children under university education even in the case of insufficient family budget so long as their children performs satisfactory academic records. No less than 53% interviewees are willing to move their residence if necessary to meet educational requirements and 91.9% answer positively in paying private education expense.

In conclusion, no matter what social stratification affiliation Chejuian parents stand, their enthusiastic attitude toward education as well as willingness of support reaches the highest level in Korea.

4. 주된 소득원은 무엇입니까

- 1) 자영 2) 월급 3) 임대 수입 4) 이자 수입
- 5) 연금 6) 일급 7) 시간급

5. 주택의 종류

- 1) 아파트 60평 이상, 단독주택 100평 이상, 연립주택 60평 이상.
- 2) 아파트 34-60평, 단독주택 50-99평, 연립주택 34-60평.
- 3) 아파트 34평 이하, 단독주택 50평 이하, 연립주택 34평 이하.
- 4) 다세대 주택
- 5)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중 독채 전세.
- 6)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중 독채 월세
- 7)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중 방 일부 전세 및 월세

6. 거주지역

- 1) 아파트 밀집지역, 일반 주거지역 (잘사는 동네)
- 2) 아파트 밀집지역, 일반 주거지역 (중간 정도)
- 3) 아파트 밀집지역, 일반 주거지역 (못사는 동네)
- 4) 주택, 상가 복합지역.
- 5) 상가지역
- 6) 공장지역
- 7) 농촌지역

다음은 학부모님의 생각을 묻는 문항들입니다. 학부모님의 생각과 일치하는 것을 하나만 골라 번호 앞에 V표하여 주십시오.

1. 자녀를 실제로 어느 수준까지 교육시킬 계획이십니까?

- (1) 인문고 졸업 (2) 실업고 졸업 (3) 전문대학 졸업
- (4) 4년제 대학 졸업 (5) 석사학위 이상

2. 대학까지 보내신다면 대학의 어느 계열에 진학하기를 원하십니까?

(대학까지 보내실 계획이 있는 분만 대답해 주십시오.)

- (1) 인문과학 계열 (2) 사회과학 계열 (3) 상경계열
 (4) 법학 계열 (5) 의학 계열 (6) 자연과학 계열
 (7) 공학 계열 (8) 사범 계열 (9) 예능 계열
 (10) 체육 계열

3. 자녀를 대학 중에서 어디에 있는 대학에 보낼 계획이십니까?

(대학까지 보내실 계획이 있는 분만 대답해 주십시오.)

- (1) 거주지 시·도에 있는 대학 (2)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
 (3) 서울 및 거주지 시·도 이외의 대학 (4) 외국에 있는 대학

4. 우리 사회에서 대학을 나오지 않은 사람이 겪는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1) 인간적으로 무시당한다. (2) 결혼 상대자를 고르기 어렵다.
 (3) 승진이 잘 안 된다.
 (4)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직업을 갖기 어렵다.

5. 4년제 대학을 나와도 전문대나 고졸자 보다 바라는 직업을 갖는데 유리하지 않다면, 자녀를 어느 학교까지 보내시겠습니까?

- (1) 고등학교만 졸업시키겠다. (2) 전문대학에 보내겠다.
 (3) 그래도 4년제 대학에 보내겠다.

6. 원하는 교육수준의 자녀교육을 위하여 교육비를 어느 정도까지 부담하시겠습니까?

- (1) 빚을 내서라도 부담하겠다.
 (2) 가정경제가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부담하겠다.

7. 자녀의 성적과 가정형편을 고려할 때, 대학진학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 (1) 대학을 갈 성적이 안되고 가정형편이 어려워도 꼭 대학에 보내겠다.
 (2) 대학 갈 성적이 되면 가정형편이 어려워도 꼭 대학에 보내겠다.

- ___(3) 대학갈 성적이 되어도 가정형편이 어려우면 보내지 않겠다.
- ___(4) 대학갈 성적이 되고, 가정형편이 어렵지 않아도 자녀가 원하지 않으면 대학에 보내지 않겠다.

8. 원하는 수준의 자녀교육을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사할 생각이 있습니까?

- ___(1) 무리를 해서라도 이사하겠다. ___(2) 여건만 허락하면 이사하겠다
- ___(3) 굳이 이사할 필요가 없다.

9. 자녀에게 과외가 필요하다면 과외비를 어느 정도까지 부담하시겠습니까?

- ___(1) 가정 경제가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부담하겠다.
- ___(2) 빚을 내서라도 부담하겠다.
- ___(3) 빚이 된다면 부담하지 않겠다.
- ___(4) 어찌하든 과외는 시키지 않겠다.

